



©최찬희

하나 되어



성바오로팔수도회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41호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마리아님,
저희 귀를 열어주시어 저희가 수많은 말들 중에
당신 아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저희에게 현실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소서.
특별히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소서.
흔들림이 없으신 마리아님,
저희의 지성과 마음을 비추시어 당신 아들
예수님의 말씀에 망설임 없이 순종하게 하소서.
저희가 단호하게 결심할 줄 알게 하시고
저희 삶을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이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저희에게 용기를 주소서.
행동하시는 마리아님,
당신 아드님의 애덕과 사랑을 전하고
당신처럼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도록
저희 손과 발이 다른 이들을 위해 '민첩하게'
움직이게 하소서.

2013년 5월 교황 프란치스코



■ 인사말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전화용(아녜스) 수녀 _ 2
■ 말씀과 삶 _ 4	신앙꽃이 피었습니다 하느님을 따라 사는 길 너 어디 있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 아브라함의 하느님, 요셉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오명순(데레사) 맹은진(로사) 김소연(레이첼) 김경진(마르티노) 박선희(폴리나) 양인실(카리타스) 이화영(베아타)수녀
■ 삶을 향하여 _ 17	나를 있게 한 힘 작은 불빛 주님의 종 기도하는 사람, 바오로 후회하지 않는 선택 어머니와 함께하며 바늘과 실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요 저는 아니겠지요? 사랑하는 딸아! 인간이 무엇이기에...	한경진(안드레아) 이안나(안나) 한보경(스콜라스티카) 이영로(바오로) 임미애(마리아) 박은혜(마크리나) 김수옥(모니카) 김현주(베르나뎃타) 황순경(베로니카) 김현실(도로테아) 전영란(클라라) 박현숙(아녜스)
■ 논단 _ 39	예수님의 자아계시 '길 진리 생명'(요한 14,6)과 '착한 목자'(10,11,14)의 연관성	민남현(엠마) 수녀
■ 졸업소감 _ 48	나를 세신하는 공부 졸업은 새로운 시작 '복음의 기쁨'을 가르치신 하느님의 교육방법	김종순(요한 크리스소스토모) 장정숙(클라라) 이미자(가타리나)
■ 독후감 _ 57	복음의 기쁨 침묵의 인간 야곱	최윤희(클라라) 수녀 황정아(멜라니아)
■ 하느님 사랑 체험 _ 67	조금 전방진 것도 은총입니다 초여름의 하느님 사랑 나를 복된 여자라 불러주오 말씀으로 하나 되는 통서가족	박종기(스테파노) 김유진(크리스티나) 손영순(안나) 김순이(캐롤린)
■ 어르신들을 위한 성경공부 _ 80	영수 그곳을 향하여 마음껏 즐기자! 함께하는 즐거움 지금이 딱 좋은 때	류휘웅(예로니모) 임이자(체칠리아) 김경남(프란치스카) 변승섭(아녜스)
■ 책 속에서	액자에 담긴 풍경	손영순(안나) _ 86
■ 나눔터 모음 _ 89		
■ 평가자에게서 온 편지		최현철(안드레아) 신학생 _ 92
■ 십자가의 길		김용민(요셉) 신학생 _ 94
■ 25회 졸업생들은 말한다 _ 102		
■ 연수회 갤러리 및 소감 _ 111		
■ 교육원 소식 _ 104		
■ 책소개 _ 118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분처럼 살아가기를...



전화용(아네스) 수녀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롭게 소임을 받은 전화용(아네스) 수녀입니다.

연수회에 참석하신 분들과는 인사를 나누어 아시겠지만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의 모든 학생들과 평가자님들께 지면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소임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만난 다양한 상황과 모습들, 저의 마음에 담아진 것들을 소박하게 함께 나눕니다.

제가 소임을 맡자마자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했던 것은 내년 연수회 강의를 부탁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인사드리며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나? 그런데 신부님 들께서는 조심스레 두드린 저의 방문에 흔쾌히 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조심스레 내미는 손을 잡아주신 신부님들의 존재를 가만히 제 마음에 담았습니다.

연수회 때가 되자 역시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고 무슨 표현을 해야 할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해주실 신부님들과 학생들을 만나자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배우겠다고 달려온 학생들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한 분 한 분에 대한 소중함과 사랑스러움이 제 마음에 자리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애쓰는 수녀님들과 직원들, 학생들을 위해 섬세한 관심과 사랑을 쏟

아내는, 전화 한 통에도 어떤 학생인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알아차리려고 메모를 하고 관련 파일을 열어 학생을 살피며 답을 하는 마음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에 대한 존중, 그것은 사람 사는 삶의 자리가 지닌 또 다른 색깔의 행복을 느끼게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할 수 있을까 마음 쓰며 바쁜 사목에도 불구하고 교재작업에 여념이 없으신 신부님들, 강사 신부님들, 평가지님들의 숨은 노고들을 보며 느꼈습니다. 마치도 아이가 삶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까지 온갖 마음으로 삶의 노고를 바치는 어머니의 모습 처럼….

한편으로 마음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통서가족 마산교구 안인수(마르티노) 회장님의 임종이었습니다. 성경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가족처럼 챙기고 서로 하나로 모이도록 힘을 실어주며 봉사하는 일에 자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 임종하기 며칠 전에는 피정과 고해성사의 체험을 통해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행복해하셨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벚들과 산책하던 중 쓰러져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간 회장님. 장례미사에 참례하면서 제 마음에 다가온 회장님은 진정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시간 속에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재능·은총 등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간 사람….

월피정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존재의 부유함과 안일함과 만족감으로, 이웃의 부족을 모르는 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현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내미는 손을 계산하지 않고, 이유를 대며 거부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하느님의 것인 저를 나누어 줄 수 있게 해주소서. 인간사의 모든 것을 스스로 겪으시어 앞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로 나아가도록 삶의 본을 보여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주님, 당신처럼 살아가게 해주소서!”



창세기 12-23장 필사하면서 묵상한 내용을 자신의 체험과 연결시켜 쓰십시오.

신앙꽃이 피었습니다

오명순(데레사) · 1학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떠나가는 일흔다섯 살의 아브람의 믿음과 순명하는 태도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그 섬리 안에서 벗어나려 불순종하는 내게 꼭 필요한 본보기다. 그 믿음을 어찌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마는 그래도 나의 자아를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설 수 있는 힘이 되는 원천이기도 하다.

나는 스물아홉 되던 해에 직장의 어른으로부터 남편을 소개받아 남편보다 더 나를 좋아하시는 시아버님의 서두름에 떠밀리듯이 열떨결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남편도 나도 서로 별다른 감정 없이 다만 특별히 독신을 고집할 명분이 없었기에 어른들의 염려를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그리했던 것 같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은 성실해 보였고, 구멍가게를 하고 계시는 시부모님은 무척이나 따뜻하게 날 반겨주어 그동안 객지생활에

지쳤던 나는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머물고 싶었다. 한 살 많은 남편을 결혼식에서 처음 본 친척 어른들은 사람이 착해 보이긴 하나 병색이 있어 보인다고 염려하셨지만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첫 아기는 심한 임신중독으로 인해 어려운 과정들을 겪긴 했지만 무사히 태어나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런데 아기가 8개월쯤 되었을 무렵 회사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남편한테서 이상이 발견되어 병원 출입이 잦아졌고 그렇게 우리의 긴 시련이 시작되었다. 시부모님은 개신교에 다니고 계셨지만 고집 센 나를 설득하시지 못했고 나는 여전히 무신론자였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절감하며 우린 대체의학이나 자연요법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던 해에 남편은 건강회복에만 전념하기 위해 퇴직을 했고 그로부터 기약 없는 떠돌이 생활이 시작되었다. 병명도 모른 채 시들어가는 남편과 함께 치료방법을 찾겠다고 나까지 직장을 그만둔 후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심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시절 친척·친구들과도 서서히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고, 길 잃은 사람들을 따라 점집이나 굿집을 드나들기도 했다.

기공치료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서 숙식을 하던 남편이 어느 날 한밤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 달 후 퇴원을 했지만 남편은 걸음조차 떼지 못했고, 인공신장기의 도움에 의존해 투석을 해야만 했다. 신장이식을 필요로 하는 병이기에 형제들은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더구나 경제난에 허덕이는 모습 또한 멀리하고 싶었던 것 같다. 병원에 있는 동안 어린 아들 둘은 친정에 맡겨졌고, 퇴원 후 갈 곳이 없었던 우리는 친정집에서 더부살이를 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정말 막막하던 시절이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작은아이가 5살이었는데 아무도 관심 있게 말을 걸어 준 적이 없는 작은아이는 그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다. 시골이라 돈벌이를 할 곳도 없었던 그때, 남편의 병원비를 마련하는 일과 아이들을 먹여야 하는 일에 맞닥뜨려 난 감했던 일은 지금도 가끔 악몽으로 나오곤 한다.

난 도저히 그 시간을 넘길 수 없을 것 같았다. 친정집에서 오빠와 올케의 갈등으로 집을 쫓겨 치악산 아래의 화전민이 살던 빈 집으로 들어가던 날 밤, 잠든 아이들 얼굴과 온갖 호스로 연결되어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이 밤이 지나

고 나면 깨어날 꿈이길 무수히 자신에게 주문처럼 되뇌었다. 그 무렵 우리는 탈출구 없는 동굴에 갇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모두 소진해 버린 상태였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향해 길을 떠났던 늙고 자식마저 없던 아브람에게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창세 12,7)고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린 미처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고 그분을 의식하지도 못했다. “이런 일이 있는 뒤, 주님의 말씀이 환시 중에 아브람에게 내려왔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는 매우 큰 상을 받을 것이다.’”(창세 15,1)

아브람의 믿음의 여정이 자신의 힘을 모두 소진한 후, 인간의 눈으로는 마지막에 이른 것 같은 그 절정의 순간에 시작되었듯이, 우리 가족을 돌보시는 하느님의 손길도 그렇게 절망 안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셨다. 나는 그 후 선배의 도움으로 전에 일했던 직장에 복귀했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남편과 아이들도 데려와 살게 되었다. 식구들과 모여 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는지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다. 물론 가끔 응급실로 뛰어갈 때마다 아이들은 둘만 남겨져 끼니를 굶어야 했다. 우주에 우리만 남겨져 있는 것처럼 도움을 청할 상대들도 이미

멀어져 있었다. 병든 사위를 볼 때마다 한숨을 토해내는 친정어머니는 남편을 더 어렵게 했고 우리는 그렇게 고립되었다. 하느님께서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돌보셨고, 그렇게 오랫동안 부르셨지만 난 내 아픔에만 집중해 있을 뿐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러나 혼란을 겪으면서 나이 사십이 될 무렵 남편과 나는 세례를 받고 미카엘과 테레사로 다시 태어났다. 나는 그때를 감히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라이가 사라가 된 것에 비유하곤 한다. 우리의 신앙이 아주 천천히 자라나면서 아픔을 품은 채로도 평안한 하느님의 사랑에 안길 수 있음을 느끼며 교회의 식구들을 사귀었다. 인간의 방법대로 얻은 이스마엘을 돌보시고 하가르의 부르짖음도 들어주시는 당신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이 어찌 가능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분의 은총이란 사실밖에는... 백 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이사악을 주신 하느님, 아이를 낳지 못하며 더구나 이미 아이 낳을 나이가 지난 사라를 돌보시어 이사악을 낳게 하신 당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가져다주셨구나. 이 소식을 듣는 이마다 나한테 기쁘게 웃어주겠지.”(창세 21,6)

네, 아버지! 당신은 제게도 그런 은총

을 베풀어 주셨나이다. 학습장애를 앓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던 라파엘이 아빠가 일했던 대기업에 스카우트되고, 4학년 학비로 천만 원이나 되는 장학금까지 받아 저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아빠와의 갈등으로 골이 깊어 방황하던 가브리엘은 아빠와 이틀 밤을 보내며 화해를 했습니다. 마무리가 이리될 줄 모르고 저는 괜히 비통함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제 미카엘을 천국으로 불러 가신 당신의 자비를 믿고 의지하며 저의 주인이신 주님께 저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나의 걸음걸음마다 나의 주님께서 함께하셨음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나의 한숨이 그리 깊어 뺨속까지 아프지는 않았겠지만 그 어리석은 시간 또한 허락하셨으니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린다. 이제 폭풍우 몰아치던 밤을 지새우고 나서 텃마루에 걸터앉아 내 안에 신앙꽃이 피어나기 위해 그리되었음을 음미할 줄도 알게 되었다. 가브리엘과 라파엘과 나는 미카엘을 하느님께로 보내드리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바쳐야 했던 미카엘의 삶을 회상하며 그의 묘비에 글을 적었다.

“젊음을 온전히 바쳐 병고를 젊어져야 했지만 원망도 불평도 없이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신 당신은 짓눌리는 고통 속에서도 늘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이 먼저였기에 더없이 승고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슴에 남습니다. 훌륭한 승이자 남편,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고 이제 달릴 길을 다 달려 승리한 당신은 영원히 우리의 영웅입니다.”

사도 13-21장을 필사하면서 묵상한 내용을 자신의 체험과 연결시켜 쓰십시오.

하느님을 따라 사는 길

맹은진(로사)·2학년

“형제 여러분, 다른 민족들도 내 입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하느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뽑으신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을 아시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어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화하시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사도 15,7-9)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바오로 사도

의 삶의 방향이 이 말씀에서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바오로는 사도로 선택되었고 이방인과 함께 살았으며 온전히 하느님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붙들었을까? 무엇이 그를 예수님만을 따라 살도록 이끌었을까?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중심에 두고 살았던 그가 진심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제 삶의 자리는 매 순간 ‘선택’을 맞닥트리게 됩니다. 그분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과 나만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쉽게 저버리게 되는 마음은 ‘그분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만을 바라보는 마음’은 언제나 손만 뻗으면 닿는 가까운 자리에 있어 쉬운 길을 택하고 싶은 마음에 항상 굴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뒷전입니다. 열에 한 번은 하느님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사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제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뿐입니다. 제 마음은 매 순간 복잡합니다. 그리고 감정과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만의 공간 안에 갇혀 또다시 저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바오로 사도에게는 그런 복잡함이 없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서는 단순함이 느껴집니다. 오직 한 가지 사명을 위해 온전히 성령에 의해 움직이

는 바오로만이 존재하고, 그 외의 것은 모두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완전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단 한순간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방인의 도시에서 전교를 하고 서간을 쓰고 천막 수리로 생계를 이으며 열정과 투신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을 박해하고 모함하는 유다인과 이방인들에게도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도망가지도 않았고 직면해서 해결하고 맞서 싸웠습니다. 단 순함과 신뢰. 그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느님께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한편, 생각해 봅시다. 그런 귀한 선물을 하느님께서 거저 주셨을까? 그런 선물이 거저 주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느님과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통한 깨달음이 바오로에게 단순함과 전적인 신뢰를 만들어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바오로를 단련시키는 도구, 거침없는 그의 일대기를 가능하게 한 경험은 바로 환난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사도 14,22ㄴ) 바오로는 하느님께 가는 가장 빠른 길이 환난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오로가 살아온 삶이 증명해 줍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유다

인 바리사이파로서 무엇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껌껌한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암흑 속에서 그는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감정이 그를 둘러싸고 흔들어대지 않았을까, 그 고통이 극심해서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환난을 경험한 바오로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그동안의 삶을 돌아본 뒤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갑니다. 온전한 하느님의 사람으로 말입니다.

“가장 좋은 가르침은 경험이다.”라는 말처럼 그래서 바오로는 자신의 삶에 비추어 환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오로는 사도행전에서 환난과 하느님 나라의 상관관계를 언급합니다. 자기 존재의 밑바닥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래서 하느님 안에 완전히 머무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사실. 바오로가 그 증인입니다. 이것이 바오로의 깨달음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대담한 전교활동과 일대기가 다시금 저를 돌아보게 합니다. 매일의 순간에서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택하는 저의 삶을 말입니다. 환난에

대처하는 저의 자세도 말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하느님한테서 저 멀리 도망가기 바쁜 제 연약함도 기억합니다. 나의 구원자, 다시 살리실 분은 예수님. 그분을 통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성경말씀처럼, 그 연약함과 죄 안에서 저는 그분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하느님이 사랑하신 바오로 사도의 삶에 제 삶을 비추어 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묵상에서 얻은 귀한 다짐입니다. 그분께서는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려 합니다.

창세 1-4장을 쓰고, 가장 마음에 와 닿은 구절을 중심으로 묵상한 내용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너 어디 있느냐?

김소연(레이첼) · 3학년

“너 어디 있느냐?”(창세 3,9)

하느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는 유일한 약속을 어

기고 죄를 짓고 만 아담과 하와에게 “왜 그것을 따 먹었느냐?”고 직접적으로 묻지 않으시고 “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제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직접 “왜 그 열매를 따 먹었느냐?” 하고 혼내시면 될 것을, 하느님은 참 답답하게도 물으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자식을 둔 부모가 되어 보니, 그 말씀 안에는 너무나 큰 사랑이 들어있음을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지른 후 슬슬 눈치를 보면서 내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시간을 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느님 가까이에 오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 눈치보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안쓰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과 떨어진 자신들의 위치를 자각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에 그냥 넘길 수는 없어 에덴동산을 떠나가게 하셨

지만, 떠나는 그들에게 가족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던 것이 하느님의 참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저에게 물으십니다. “레이첼, 너 어디 있느냐?” 저는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사이에 숨어 하느님을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른 제 잘못을 돌아보고 통회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느님 곁에서 언제나 함께 걸으며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 삶의 남은 날 동안 하느님께서 계속 저에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그때마다 저는 변함없이 하느님 가까운 곳에 있는지 제 자리를 점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과 43장을 쓰고, 가장 마음에 와 닿은 구절을 중심으로 묵상한 내용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김경진(마르티노) · 4학년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데라곤

없이 상처와 상흔 새로 맞은 자국뿐인데 짜내지도 싸매지도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이사 1,6)

1. 어머니에 대한 묵상

어릴 때는 자주 아파서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커서는 품 나게 살겠다며 술과 여자와 도박으로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어머니 몸에 박은 못이 몇 개인지 셀 수도 없는데, 추악한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뽑아도 뽑히지 않을 대못을 쿵쿵 어머니 가슴에 다시 박았습니다.

핏줄이란 이유로 어머니께 박은 수없이 많은 못 자국.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데라곤 없이 상처와 상흔뿐인데 어머니는 짜내지도 싸매지도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고’ 여전히 이 못난 자식만은 우선으로 생각하십니다.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서는 제 인생의 등대이시며 키잡이십니다. 만약 아직도 제 손에 대못이 쥐어져 있다면 주님의 자애와 불같은 호통으로 제 손과 제 안의 대못들을 없애주시고 제 어머니의 상처와 상흔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시어 주님의 맛갚은 도구로 제련하소서!

2. 아버지에 대한 묵상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여동생과 나는 아버지를 따라 강원도 속초(아버지의 고향)에 내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버지는 배를 타셨고 어중에 따라 3일에 한 번 집에 오시거나 어떨 땐 한 달 이상 걸리는 오징어잡이를 나가곤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남매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육지에 들어오시면 항상 술에 전 모습이었고, 여동생과 나를 갖은 이유로 구타하는 게 일과였습니다. 어쩌다 친구들과 동네를 지나가다 술에 취한 아버지를 보게 되면 나는 모른 척 다른 길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내 아버지일까? 어떻게 저리도 무능한 사람이...’

비록 어릴 적 단편적인 기억이지만 아버지는 엄마조차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그랬기에 이혼이란 걸 했겠지만.) 여하튼 전 그런 아버지가 너무도 싫었습니다. 고기잡이용 밧줄로 내 등을 사정없이 후려치던 그 아버지를.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데라곤 없이 상처와 상흔 새로 맞은 자국뿐인 짜내지도 싸매지도 못하고 기름도 연고도 바르

지 못한’ 어린 저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는 것, 살이 스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때 나의 목표는 첫째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 둘째 아버지 같은 어른이 절대 되지 말자는 것이었고 더욱이 내 자식에게 이혼의 아픔을 절대 겪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어른이 되었고, 결혼도 했습니다. 물론 중학교 이후 저는 첫 번째 바람대로 아버지 곁을 떠나 서울의 어머니께 갔고 고등학교, 대학을 거쳐 결혼까지도 어머니 밑에서 했습니다. 그렇게도 끄찍했던 아버지와 떨어져 살아온 시간 동안의 작은 변화라면 결혼 전에 아내 덕분에 아버지와 해묵은(?) 감정을 정리한 것이고, 결혼 후에도 명절 때마다 찾아본 것입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름다운 기억이 없는 것이 내겐 엄청난 힘들었나 봅니다. 기억이라곤 고작 항상 술에 찌들어 있고 화를 잘 내던 그런 아버지였기에...

봄이라고 하기엔 아직은 많이 춥던 어느 날(1999년 4월)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경진아, 날 따뜻해지면 애기(집사람)랑 한번 내려와라. 가리비 맛나게 구워줄게. 맛난 것 많이 먹어야 몸도

건강해지고 아기도 생기고 그러지. 우리 며늘아가 너무 약해. 그리고 경진아! 네 엄마한테 잘하고....” “... 네.” 목으로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울컥 솟았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며칠 후 조업 중이던 배에서 아버지가 파도에 휩쓸려 나가셨고 해경과 군이 합동으로 수색 작업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속초로 달려 내려가던 그 국도길이 왜 그리도 긴지 밟아도 밟아도 내겐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실종사 처리되었고, 그곳 풍습에 따라 산소조차 못쓰고 해난 위령탑에 위패만 안치시켰습니다.

2014년 5월 지금의 난 푸른 수의를 입고 담장 안에 갇혀있습니다. 추악한 범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 장기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내 아이에게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아픔을 주지 않겠다던 그 결심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제일 후회되는 일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그때, 그때 했어야 할 말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 죄송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세월호의 사고를 전해 들은 이곳 담 안 역시 커다란 슬픔에 빠져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그 가족들의 고통, 기다림을 알기에 하루도 편할 수 없는 가시밭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오직 성심을 다한 기도뿐! 비록 불혹을 한참이나 넘기고 15척 담 안에서 야 깨달은 가족의 소중함, 주님의 사랑이지만 이 깨달음이 앞으로의 미래를 밝게 해주리라 생각해 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데라곤 없이, 상처와 상흔 새로 맞은 자국뿐인데 짜내지도 싸매지도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한’ 내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깨끗이 치유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모소서 5장을 쓰고, 가장 마음에 와 닿은 구절을 중심으로 묵상한 내용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박선희(폴리나) · 4학년

“정녕 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집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아모 5,4)

일상생활 안에서 아주 미소한 일이든 큰 사건이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안에 우리가 있고, 그분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면 서도 선택의 기로에서 잠시 머뭇거린다.

그러나 기꺼이 하느님 뜻을 선택하였을 때 참 평화와 기쁨이 솟는 축복이 온다는 것을 체험한다.

결혼한 큰딸이 셋째 아기를 임신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 둘째 아기를 낳고 얼마 후, 어릴 때 치유되었던 병이 재발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겨우 병고를 이겨내고 회복되는 것을 보며 양가의 가족들이 한숨을 돌리려 하는데 계획에 없던 아기가 들어선 것이다. 딸과 사위는 물론 우리 부부도 처음엔 크게 놀라 걱정이 산처럼 밀려왔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생명이기에 순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사돈댁에서 만나자고 하셨다. 여러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했는데, 며느리가 잘못 되면 아들과 손주들은 어떻게 되느냐며 안사돈은 울고 바깥사돈은 아기를 포기하자고 했다. 내가 안사돈의 손을 잡고 “하느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면 괜찮을 거예요.”라고 하였더니 안사돈은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바뀐 것 같다며 계속 울었다. 그러나 나는 왜 이리 담담한지,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딸의 생명과 아기 생명을 하느님 뜻에 맡겼기에 담담했는지 모른다.

그때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이 돌연히 일어나더니 “새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지겠소.” 하였다. 그날부터 딸과 사위, 두 손자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셋째 아기가 태어나기 한 달 전까지 같이 살았다. 셋째 아기는 딸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었다. 한 달 후면 태어날 아기와 산모를 위해 미사 봉헌을 특별히 청했다. 아기는 무사히 건강하게 태어났고 산모도 건강하였다.

그런데 백 일이 지난 후 딸의 병이 재발했다. 장염을 심하게 앓고 난 후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 갔다. 청천벽력이지만 여전히 난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정신을 차리고 어린 두 손자와 아기를 돌보아야 하기에 딸의 병을 주님께 맡겼다. 주님과 성모님만 찾았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왜 다시 재발했는지 조사하자고 했다. 장염이 걸린 후 섭취한 음식물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로 특정 해산물에서 나온 바이러스임을 알게 되었다. 어릴 때 아팠던 이유를 드디어 찾게 된 것이다. 30여 년 동안 발견하지 못한 병의 원인을 찾게 된 것은 생명을 주신 하느님을 거스르지 않고 하느님을 선택했기에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고 우리 부부는 이야기한다. 새 생명을 거부했다면

대죄로 인한 고통에 시달렸을 것이고 딸의 병이 재발한 이유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아찔한 순간이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셋째 손녀딸은 벌써 4살입니다. 하느님! 찬미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타르수스의 바오로」(박태식 지음)를 요약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자서전'을 쓰십시오.(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 삶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쓰십시오.)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

양인실(카리타스)·2학년

저는 태어난 지 20일도 되지 않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세례 때의 감동이나 첫영성체 때의 기쁨을 이야기할 때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리포트를 준비하면서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한 제 삶을 이야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바오로의 고백(갈라 1,11-24)처럼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주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지만 주님을 제대로 만난 건 제 나이 50이 넘어서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때론 주일미사와 주일학교에

빠지고 싶어도 성당에 가야만 하는 게 싫었고, 미사 드리러 가는 척 나와서는 성당 언저리를 맴돌다 집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마음속에 젖어든 신앙심이 저를 지금까지 주님 곁에 머물게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그저 주일을 지키는 평범한 신앙인.

그러다가 신앙인이 아닌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면서 몇 년간 냉담으로 이어졌고, 다시 신앙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아이 수준의 신앙생활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집 식구들과의 갈등으로 미움과 서운함이 가득 찬 제 마음은 웬만한 일에는 더 이상 동요하지 않는, 돌덩이로 변했습니다. 타인에게 향했던 그 미움들이 결국엔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을 만큼 힘들어졌을 때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가족으로 묶인 사람일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꾸 상처가 덧나 아물 수가 없었고 결국 제 마음이 피폐해져서 예전의 제 모습은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주님은 저를 영성

수련 프로그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때 새로운 신앙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며 저는 주님께 훨씬 가까이 다가갔음을 고백합니다. 그 후로 저는 주님을 좀 더 알고자 교리신학원에 등록했고, 성당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으며 지금은 통신성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녀왔던 소극적인 성격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외적인 삶의 변화만이 아니라 혼자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마음의 지옥에서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이 이루어 주신 결과였습니다. 주님은 정말 뜻하지 않은 시간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가장 필요한 도움과 위로를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주님 앞에 겨우 걸음마를 댄 어린아이이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많지만, 지금은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저를 떠올리면 어딘가로 숨고 싶을 만큼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모습들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죄인을 언제나 기다려 주시는 주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그 체험으로 저와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로

다가서는 삶을 살고자 용기를 냅니다.

「거룩한 독서 1」(정태현 지음) 중 창세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고, 한 주간을 골라 해당되는 본문과 성경 구절을 목상한 내용을 자신의 체험과 연결시켜 쓰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느님, 요셉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이화영(베아타) 수녀·3학년

청년성서모임 활동을 할 때부터 창세기는 나의 고유한 성경이었다. 다른 친구들이 탈출기와 마르코복음 등 다음 단계들을 넘나들며 봉사를 할 때도 나는 오직 창세기 공부와 창세기 봉사에만 머물러 있었다. 돌이켜 보면 나는 사랑이신 창조주 하느님 이상으로 창세기 인물들에게 깊이 동화되어 있었고 그들을 통해 내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좋았다.

처음에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는 인간적이기 그지없는 야곱에게 끌렸다. 그리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신앙의 인간 요셉에게서 다시 힘과 용기를 얻고 그의 삶을 조금 이나마 배우고 싶어진다.

기도나 피정 때 지난 시간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대체로 '후회'와 '수치심'이라는

감정에 머무를 때가 많다. 지난 잘못들에 대해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또 그 잘못을 저지른 나 자신이 부끄럽다. 가능하면 지우고 싶고 돌이키고 싶다. 하지만 신앙의 인간 요셉은 나에게, 지나간 모든 일이 하느님의 은총이요 그 일들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그분께로 이끄신 섭리였음을 이야기해 준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 형제들을 용서해 주며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대목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의 너그름과 깊은 믿음에 대해 감탄하게 되지, 사실 가족과 함께 살던 그의 어린 시절은 거룩하거나 믿음직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편에받는 상황을 충분히 누렸고, 형들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다.

하지만 요셉은 나처럼 과거를 후회하고 ‘이런 걸, 저런 걸!’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내가 요셉에게 감탄하며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언제나 주어진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현재를 살았다는 데 있다.

나는 2014년 4월 현재의 시간에 있으면서도 늘 후회스러운 과거와 걱정스런 미래를 넘나든다. 그래서 쉴 새 없이 다가오는 현재를 충실하게 살지 못해 다시 후회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반복한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앞으로 어떡하지?’

요셉이 신앙의 인간이라 불리는 이유는 자신에게 죄를 지은 형제들을 용서하며 이 모두가 하느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는 결말에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옥살이와 이방인으로 머물면서 그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충실했다. 하느님은 그 현재에 대한 충실 안에 온전히 머무셨다.

봉헌생활을 하면서도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매일 성찰한다. 주님께 대한 의탁의 마음가짐 없이는 그분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계획에 협력해 드릴 수가 없다. 요셉이 가족과 히브리인들을 살리시려는 주님의 계획을 알았는가? 아니, 그는 그냥 주어지는 현재에 충실히 살았을 뿐이다.

나도 주님의 계획을 모른다. 주님께서 정화되지 않은 부족한 나를 통해 어떤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다행이다. 나는 그냥 요셉처럼 어떤 일이 주어지든 그 일들을 피하지 않고 껴안으면 된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통해 무수한 생명을 다시 창조하시고 내 안에 응어리진 후회와 상처들을 치유해 주신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요셉의 하느님은 나의 하느님이 되신다.



사람은 누구나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하게 마련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느끼기도 하며 고통과 외로움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광야'의 체험, 곧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어려웠던 순간, 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장 절실했던 순간에 대해 적어 보십시오.

나를 있게 한 힘

한경진(안드레아) · 1학년

보통 사람들은 별 문제 없이 걷고 뛰지만 저는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시절 2교시 후에 늘 있었던 '조희 및 국민체조' 시간에 운동장에 몇 분만 서있어도 현기증과 함께 멀미를 할 정도로 체력이 약했습니다. 운동감각이 없어 축구와 야구를 즐기던 친구들로부터 늘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느려 형제들과 선생님께 자주 야단을 맞던 제가 어떻게 군인으로, 그중에서도 투철한 정신력과 체력을 요하는 전투헬기 조종사의 길을 22년여 동안 무사히 걷고 있는지 참으로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하느님·예수님·성모님의 품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하느님께서 이런 저와 함께하셨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초등학교 3~4학년 때 친구 따라 호기심에 교회에 다니다가 5학년 때 본격적으로 어머니를 따라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높고 둥그스름한 천장, 영화 속에서 본 듯한 유럽풍 창문, 제대 중앙에 위치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저는 그저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가운데서 평안해지는 첫 미사와 교리를 접했을 때의 느낌을 32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 어린 나이에도 종종 성당에 홀로 앉아있거나 혼자 또는 친구들을 데려와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사제성소를 생각한 것도 어린 시절의 기도와 평온함이 크게 자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제직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공군사관학교를 지망하고 그곳을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하였으나 어처구니없게 시력에서 낙방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나마 유지했던 성적이 점점 떨어져 전기, 후기대 모두 낙방하고 전문대에 입학했습니다. 2년여의 대학생활을 하며 정신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군에 대한 미련을 버

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형님으로부터 ‘육군항공 준사관’이라는 전투헬기 조종사의 길을 소개받고서 강력한 열망으로 시험 준비를 했지만 시력 때문에 떨어져 또다시 낙담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지 않았던 방황의 시간이었으나 이제와 돌이켜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는 어머니의 기도가 함께했음을 느낍니다.

그해 8월 입영통지서를 받고, 논산 훈련소에 1992년 8월 24일 입소했습니다. 의료계열 전공 특기자로 군통합병원에서 위생병으로 생활하던 중, 전투헬기 조종사들의 정밀 신체검사 시력 분야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시력 때문에 조종사가 되지 못했는데, 그 시력 검사를 제가 담당하게 된 것을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을지? 그때 다시 한번 도전하자는 열망이 솟아올랐습니다.

다시 시력 검사를 해보니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신체검사 때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오랜 시간 책을 보면서 생긴 일시적인 피로증세로 시력이 불합격으로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도전한 끝에 1993년 5월 육군항공 준사관 전투헬기 조종사에 합격했습니다. 마침내 전투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 퇴교당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무언가에 사로잡혀 그냥 막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이곳이 아니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하며 교관 앞에서 함성을 지르던 용기는 다른 아닌 주님의 영, 성령의 힘에 사로잡혔기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지금에서야 깨닫습니다. 어린 시절 성당에서 느낀 고요함 가운데의 평화, 십자가와 감실 앞에 말없이 홀로 앉아있을 때, ‘십자가의 길’ 기도를 즐겨 바칠 때 이미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나약했던 제가 결코 쉽지 않은 WARRANT OFFICER 준위로서 전투헬기 조종사가 되기까지 험난한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너, 나만큼 힘드니?” 하시는 십자가 위의 예수님을 기억했고 그 십자가에 의지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늘 평온한 시간들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1테살 5,16-18) 하

신 바오로 사도의 말씀에 따라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삶! 그것입니다. 늘 나에게 양식이 되는 미사 감사송(“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에 나와있듯 감사하는 삶, 그것이 곧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삶입니다. 그에 따라 ‘감사’로써 시작하고, ‘감사’로써 이겨내며, ‘감사’로써 끝맺음으로써 ‘감사’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멘!

작은 불빛

이안나(안나) · 1학년

26살에 한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저에게 큰 십자가가 될지 몰랐습니다. 둘째를 낳자마자 남편의 사업실패를 알게 되었습니다. 빚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 되지 않은 전세 보증금을 빼고, 24개월 된 아들과 1개월 된 딸을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가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희 네 식구가 작은 방

에서 오글오글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빚을 갚기 위해 직장에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6년을 살면서 빚을 조금씩 갚았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어려워졌고, 시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분가를 하였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햇빛도 잘 들어오고 한 지붕 안에 우리 식구만 모여 생활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남편의 사업실패로 작은 지하 월세방으로 이사를 해야 했고, 그 이후로도 또 이사를 하게 되면서 남편과 많이 부딪쳤습니다. 점점 부부 사이는 멀어져 가고, 남편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늘어만 갔습니다. 남편은 매일 술에 의지하며 폭언과 주사를 부렸고, 돈을 구해오라며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제 눈에는 남편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점점 빈곤해져가는 내 생활을 보며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이 사람 좀 말려주세요.”

이런 저의 운명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너, 왜 그러고 사니?”라고 말하는 형제들과 친구들이 싫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참고 또

참고 살아야 하나? 그러면서도 이혼이라는 결말 앞에서 혹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 제가 진정으로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늘 나 혼자 자라고, 그냥 넓은 광야에 나 혼자 서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변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수동으로 이사 온 지도 5년이 넘어 가네요. 성수동성당에 주일미사만 참석하다가 자모회 회장을 만나면서 통신성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보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늘 내 마음대로 하느님을 판단하며 생각한 것이 죄송하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제는 믿음이라는 말씀이 조금씩 제 가슴에 들어오면서 작은 미소를 짓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주님, 언젠가는 남편 프란치스코도 당신이 항상 같이 있다고 믿는 날이 오겠지요?” 하느님의 말씀, 곧 사랑이라는 작은 불빛이 저의 가슴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나 자매님의 평가동반자 김용민(요셉) 학사님께서 다음의 글을 첨부해 주셨습니다.]

+ 예수님의 희망인 안나

먼저, 기도합니다. 자매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쉽지만은 않죠. 때론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고요.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기도 하구요. 저는 미대를 졸업했어요. 여유로운 가정형편이 아니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어야 했죠. 책상 하나와 옷걸이 하나. 한 사람이 누우면 딱 차는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그림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수입이 일정치 않았어요. 집에 손 벌리기도 어려웠고 한 번씩 아쉬운 소리를 할 때 돌아오는 말들에 상처보다는 미안함이 훨씬 더 컸어요. 고시원비가 밀려서 아주머니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1,000원짜리 햄 한 봉지 사서 하루에 3개씩 나눠서 먹고요. 담배도 개수를 정해놓고 피우고, 물감 살 돈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원색들만 사서 색갈 만들어서 쓰고, 빌려 쓰고,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술 한 잔 하자는 말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로 고시원에 일찍 들어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한 밤들이 계속되었어요.

방 안에 있는 거라곤 이불과 옷 몇 벌, 그리고 지퍼 달린 남색 성경뿐이었어요. 선물 받은 초를 켜고 성경을 읽었어요. 어렸을 적 만화책 대신 성경을 보곤 했는데 정말 오랜만이었죠. 몇 장을 읽었는지, 몇 시간을 읽었는지 모르니다. 그 후로 항상 성경을 읽었어요.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마음이 아리고... 어두운 방과 나를 비추고 가득 채운 건 촛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광야였던 대학 시절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구요. 부족하고 불편했던 그때엔 작은 것 하나하나도 하느님께 물었어요. “오메! 주님, 저녁은 어찌죠? 오! 주님, 이젠... 아이고! 주님... 내일은...” 길을 걸으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방에서 라면을 먹으면서도 하느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이 되어주신 주님이셨어요.

내가 배고프니 다른 사람이 배고픈 것도 보이더라구요. 귀하디귀한 내 밥값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때의 기쁨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 그 한없이 부족하고 불편했던 시간은 저를 하느님께 이끌어 주었어요. 그리고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그것을 대하는 저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려움을 풀어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우리는 각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광야와 어두운 밤을 겪습니다. 광야에 가서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고, 하느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서 우리가 신뢰와 사랑으로 응답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광야, 그래서 광야는 은총입니다. 광야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바로 곁에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광야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아프고 힘든지요! 안나 자매님의 소중한 나눔을 마주하며 ‘아! 힘드셨겠구나...’라는 말조차 아깝습니다. 직접 체험해 보지 않고서는 온전히 그 고통을 알지 못하기에... 기도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안나 자매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공생화에 앞서 먼저 광야에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자, 보아라. 그대는 외톨이가 아니다. 나는 여기 먼저 와있었다. 나도 40일간 굶었고 괴로웠다. 나는 언제나 그대와 함께 있다. 나의 사랑을 믿어보아라.”

우리 주님께 더없이 사랑받는 안나 자매님!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고 믿으시기에 자매님께 펼쳐진 이 세상에서, 용기와 힘을 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완성이로 나아가는 ‘되어가는 존재’이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지치지 않는 자비와 그 애틋한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함께합니다. 힘내세요.

아! 그리고 저는 저의 어머니,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엄마로 있어주고,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살아주신 엄마를 사랑합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자녀에겐 그렇습니다. 울지 마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김 요셉 드림

예수의 여러 칭호를 공부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알아보고 모셔드릴 수 있는지 적으십시오.

주님의 종

한보경(스콜라스티카) · 2학년

예수님의 여러 칭호 중 특히 마음에 새겨지는 칭호는 ‘주님의 종’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 시대의 히브리 민족과 같은 구세주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 삶의 간절한 바람들은 경제적인 부분, 건강, 가족의 안위, 일에 대한 성취와 인간과의 관계 등등 아주 현실적인 것.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 삶의 가장 아픈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하고, 또 청하곤 한다. 그러나 ‘주님의 종’이란 예수님의 칭호에서 결국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어쩌면 우리의 구세주는 나의 모든 난제를 해결해 주고 아픈 곳을 싸매어 줄 수 있는 힘을 주는 이가 아닌, 나의 아픔 이면의, 내가 향해야 할 곳을 보여주는 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예수님은 슈퍼맨처럼 홀연히 나타나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처연한 삶을 아버지 뜻에 대한 순명으로 살아가셨다. 우리 역시 약하고 가난하게 살아갈 때, 매 순간 자신을 죽이고 부활을 바라보려 노력하며 살 때 내 안의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우리,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 그의 삶을 닮아보려는 노력이 바로 어떤 기도보다

도 어떤 의무적인 선행보다도 구원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그분을 내 삶의 ‘희망’과 ‘믿음’으로 모시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일치하여 오직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자 애쓰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읽고, 바오로의 삶에서 본받고 싶은 면을 적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바오로

이영로(바오로) · 2학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초대 교회의 위대한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인 삶의 특별한 주제인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 바오로’의 모습을 따라가며 하느님 앞에서 사는 근본 자세가 무엇인지, 바오로가 전한 ‘복음’에 맞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성인을 조금이라도 본받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영적 체험’의 절정이며 인간은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의 내밀한 관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은 피조물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에서 제자들이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

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오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되풀이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배우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성경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기도의 본질과 자세를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솔로몬부터 신약의 예수님, 사도들,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다양한 기도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성경 서간 대부분을 쓴 사도 바오로는 어떤 유형의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바오로가 신학자와 선교사이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서간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바오로는 서간을 시작할 때마다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신자들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해준 신자들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오로는 항상 스스로 먼저 기도하고 신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첫 서간인 테살로니카 1서부터 거의 마지막 서간인 로마서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라는 권고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

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1테살 5,16-18)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로마 12,12)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바오로의 권고를 실천하기 위해 초기 교회의 교부들은 사막으로 들어갔고, 그 말씀에 영감을 받은 성인 성녀들은 성령에 이끌려 깊은 기도생활을 자신의 소명으로 살아갔습니다.

바오로는 신자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도 자주 합니다. 그는 신자들의 기도가 그의 선교에 협력하는 중요한 영적 지원이며, 기도의 힘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드리며 나와 함께 싸워주십시오.”(로마 15,30)

바오로에게 기도는 단지 개인적 내면 생활의 한 측면에 머물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에게 기도는 내적으로는 물론 사도로서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외적 행동과 병행시킨 행위입니다.

바오로는 열렬한 복음 선포자인 동시에 하느님께 무릎을 꿇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 자신도 성인의 말씀처럼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이 다할 때 ‘나는 온 힘을 다하여 달려왔고 이제 승리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19-20)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의 역사, 앞으로 내가 희망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자유롭게 적어 보십시오.

후회하지 않는 선택

임미애(마리아) · 3학년

2003년 이곳 오클랜드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믿음이 없었기에 주일은 제 기분대로 지키기도 하고 거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 형제자매들의 도덕성을 제 눈으로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세례받기 전 밖에서 생각했던 신앙인들의 모

습이 보이지 않자 성당을 계속 다닐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창녀의 마음까지 돌려놓아야 네 마음이 편할 것이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지만 뚜렷하게 기억이 났고 이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두 분께 여쭙어 보았지만 성경지식과 믿음이 없는 저에게 속 시원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창녀라는 말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려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저를 오해할까 봐...

내가 분수에 맞지 않는 옷이나 신발을 산다는 것인가? 내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이 창녀인가? 남편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하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지만 창녀가 뭇 저로서는 알 수가 없어 참 답답했습니다. 잊어버렸다 싶으면 또 생각나고, 몇 년이 지나도 꿈속에서 들었던 말은 잊히지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 7년이 지났을 때 「비밀」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저자가 ‘조물주’라고 한 부분에 ‘하느님’을 대입하니 하느님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알게 해달라고 종종 화살기도와 묵주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적으로 너무 힘들

어 아이를 학교에 내려주고 근처에 있는 현지 성당에 가서 처음으로 평일미사에 참례했습니다.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자매님이 “마리아 자매님이세요?” 하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처음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매님은, 전에 먼 발치에서 두어 번 봤을 뿐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자매님은 저를 다락방 기도모임으로 안내했습니다. 다락방 기도모임에 가니 매일 읽을 성경과 성모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성경과 성모님 메시지를 매일매일 읽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사야서 57,3-13을 읽으면서 제가 7년 전에 들었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창녀의 마음은 하느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자식·재물·세상의 쾌락 등에 제 마음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깨닫자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면서 둔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살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당 창세기반에 등록했습니다. 첫날 봉사자가 성경을 공부하려면 성경이 쓰였던 그 당시 중동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 문화를 알아야

이해가 잘 된다고 하시며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날 성경이 새로운 탐험지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아가는 것이 기뻐했습니다. 제 안에서 작은 희망이 샘솟는 것을 느꼈고 빨리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집안 사정으로 두세 번 나가고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해 제 마음은 자주 창세기 공부반에 가있었습니다. 우연히 통신성서에 대해 듣고, 다음 해 통신성서를 시작했습니다. 성경과 교재를 읽으며 문제집을 풀어가면서 하느님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평가자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묻기 창피한 것, 예를 들면 ‘제도덕적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야곱에게 왜 복을 주시는가? 영원한 생명이 뭐가? 히브리인, 유대인은 뭐가 다른가?’ 등의 질문을 하면 평가자님께서 정성스럽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통신성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성경을 접하기 전에는 신부님의 강론을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지금은 머리와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은 없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지 않는 선택은 바로 성경공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늘 가까이에서 저를 부르고 계셨지만 저는 창녀 짓만 했습니다. 성경을 보라고 꿈속에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이 있습니다.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저에게 쏟으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미드립니다.

“주님! 제가 항상 당신 곁에 있게 해주시고 깨끗한 영, 새롭고 올바른 영이 저를 인도하게 하소서.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저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게 하소서.”(필리 2,3-4 참조)

‘고통의 신비가’ 예레미야 예언자는 유배를 앞둔 동족의 고통에 빠져린 아픔을 느끼는 동시에 그들에게서 박해를 당하며 깊은 고뇌를 겪었습니다. 하느님께 불평도 했지만 결코 믿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나의 신앙의 여정에서 치른 고통과 고뇌의 체험을 쓰십시오.

어머니와 함께하며

박은혜(마크리나) · 4학년

나의 신앙이 굳세어질 때도 흔들릴 때도 모두 어머니의 병과 함께였다. 겨울

을 막 벗어나려던 1999년 초봄, 어머니의 감기가 낫지 않는다고만 여겼는데, 임파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우리 식구에게는 멀기만 했던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혈액암의 일종으로 다른 기관으로의 전이 가능성은 있지만 우선 세 번의 화학치료를 예상한다는 의사의 말이 너무 무책임하게 들렸다. 약물치료의 부작용으로 입 안이 험고 구토가 심해 잘 드시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하느님을 원망하고 부정했다.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신 어머니가 받는 고통이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느님이 정말 계시는지 그분이 사랑이시라면 이럴 수 없다고 하느님을 내 안에서 한없이 밀어낼 때, 나보다 더 어머니의 고통을 아파하시던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주님뿐이라며 날 위로하고 격려하셨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바치는 저녁기도 끝에 어머니의 치유를 위해 성모송과 환자를 위한 기도를 세 번씩 바쳤다. 우리 가족의 간절한 기도 덕인지 어머니는 두 번의 약물치료로 병세가 호전되었고 더 이상의 약물치료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머니가 병에서 완전히 회복

되시기도 전에 갑작스레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나셨고, 회복 중이신 어머니가 혹시 더 악화되진 않을까, 내가 슬퍼하면 어머니가 더 힘들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 놓고 아버지를 위해 울지도 못했다. 100일 동안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위한 연미사를 봉헌하고 성체조배를 드렸다. 어머니도 나도 그 시간들을 통해 아버지와 이별한 슬픔과 괴로움에서 어느 정도 치유가 되었다. 어머니의 병과 아버지와의 이별은 내게 큰 시련이며 아픔이었지만 그 과정을 이겨내면서 우리 가족을 하나로 일치시켜 주시고, 나를 당신께 더욱 가까이 불러 위로해 주신 분이 바로 사랑이신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체험했다. 큰 병을 이겨낸 어머니는 예전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나는 시간이 흐르면서 힘들었던 나를 위로해 주신 주님께 온전히 의지했던 그 간절함이 희미해지고 바쁜 내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렇게 몇 년이 큰 일 없이 흘렀고, 오랜 해외생활에서 귀국한 언니가 같은 동네에 살게 되었다.

2005년 가을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던 중 예전과 다른 불안정한 어머니의 걸음걸이와 느려진 동작을 걱정하는 언니의 말에 병원을 찾았고,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증상이 심하지 않아

약물로 증세를 개선하고 운동 등 관리를 잘하면 큰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의사의 긍정적인 말을 들었지만, 파킨슨 병은 진행성이라 약물로 증상을 조절할 뿐 완치될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내심 두려움을 떨치기는 쉽지 않았다. 몇 년 간은 잘 조절되는 듯했던 증상이 조금씩 나빠지고, 걸을 때 오는 허리의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니 의사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측만증인데 수술 등의 처치가 필요하지는 않고 허리 근육을 강화하고 평지를 걷는 운동을 권했다. 어머니는 계속되는 허리 통증으로 걷는 것이 힘들었지만 매일 미사참례하기를 원하셨고, 나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머니의 수행비서가 되어 늘 함께했다. 그즈음 내 기도는 어머니께 더 이상 다른 병은 없도록, 병으로 인한 고통은 여기서 멈추어 달라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증세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그럭저럭 현상 유지를 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가 모임이 있어 외출하실 때는 언제나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곤 했다.

지난 5월 성모병원 자원봉사자 야외 행사에 참석했는데, 집안 살림과 어머니에게 매여있는 내게 마음이 쓰이셨는지 어머니가 나보다 더 좋아하셨다. 나도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즐거운 시간을 보

낸 후 집에 올 때 즈음 어머니와 통화를 하니 목소리에 기운이 없어 어디가 아프신가 걱정이 되었다. 집에 와 보니, 내가 없는 동안 몇 가지 집안일을 하시고는 무리가 되셨는지 허리가 많이 아프셨다. 병원에 가도 진통제만 처방할 뿐 별 다른 처치는 없었다. 그래도 통증은 더 심해지고 혼자 병원에 모시고 갈 수가 없어 동생을 불러 동생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모시고 가 진료한 결과 최근에 척추 압박골절이 있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큰 동생은 자기가 병원에 있으니 자주 들여다보겠다고, 모두 일상에 무리가 지 않도록 간병인을 쓰자고 했고 나도 동의했지만 어머니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나로서는 어머니가 낯선 사람과 함께하면서 겪을 불편함에 마음이 쓰였다. 부러진 뼈가 어느 정도 붙을 때까지 안정해야 하고, 통증이 심할 때는 식사도 목욕도 모두 침대에서 하셔야 했다. 적어도 6개월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니 이 상태로 퇴원하면 내가 혼자 어머니를 간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누나 혼자 너무 힘들니 재가 간병인을 구하자는 동생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무척 서운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언니와 자신들의 가정이 있는 남동생들이 혼자 몸인 나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무게로 어머니

를 생각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이해하면서도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 커져가고 왜 내게만 이런 십자가를 주시는지 하느님께 따져 묻고 싶었다. 형제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큰 만큼 몸도 힘들고, 몸이 힘드니 말도 생각도 모두 거칠어져 아프신 어머니께도, 내게 미안해하는 형제들에게도 자꾸 상처를 주게 된다. 그러고는 또 후회한다. 그래서 요즘은 한결같은 당신 사랑의 마음을 내게 심어주시어 아프신 어머니께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청하고 있다. 어머니께 더 이상 병을 주시지 말라는 기도에서 당신과 함께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한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내게 주신 신앙의 씨앗이 잘 자라 앞으로 더욱 큰 나무가 되도록 좀 더 내 곁에서 함께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7월 초에 언니가 귀국해 나뿐만 아니라 어머니께도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 하느님은 언제나 내게 필요한 은총을 필요한 때에 주신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친구로, 지금은 내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위로자인 언니를 보내주셨으니 말이다.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통신성서교육원의 표어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대사제의 기도에 담겨있는 일치와 친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 됨을 실현해야 할 구체적인 상황과 대상을 적으십시오.

바늘과 실

김수옥(모니카) · 6학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다짐했습니다. ‘주님과의 친교는 물론이고, 이웃들과도 친교를 잘 이루어나갈 때 주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모녀는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이 되겠지.’

저는 발달장애 2급인 딸과 늘 함께합니다. ‘바늘 가는 곳에 실 따라가듯.’ 서로가 살아있는 한 하나로 같이해야 할 운명체로 받아들이고 살아온 지 어언 41년째. 딸 마리아는 엄마가 행동단원으로 있는 ‘구세주의 모후’ 브레시디움의 협조단원으로 함께 미사에 참례하며 주보 접기, 성당 청소, 성물방 봉사, 성체 조배실 청소도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이면 자원

봉사 캠프 상담가로 일하는 저를 따라 8년째 일을 하고요. 이 일을 계속하다 보니 마리아도 순서를 알아 이젠 제법 잘 한답니다. 저는 마리아가 옆에서 도와주니 훨씬 쉽고 즐겁죠. 모녀가 서로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보완해 주며 성당 일과 자원봉사처를 찾아서 일을 하다 보니 강남구 자원봉사처에 등록된 봉사 시간도 이미 1,500시간을 훌쩍 넘겼어요.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모녀를 기억해서 자원봉사센터장은 공연이나 영화 티켓이 나올 땐 같이 가라고 두 장씩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연과 영화도 함께 보며 문화생활도 즐긴답니다. 감사하죠.

성당에서 교우들은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눈빛으로 저희 모녀를 격려합니다. “딸과 함께 늘 있어 자매님은 외롭지 않겠어.”, “오늘은 웬일로 껌딱지 마리아가 안 보이네?”, “마리아, 엄마는 어디에?” 항상 함께 생활하는 저희 모녀를 보고 어느 한 쪽이 보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교우들의 인사말입니다. 제가 없을 땐 아빠가 제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씩 혼자이고 싶을 때나 친구를 혼자서 만나고 싶을 때는 같이 붙어있는 마리아가 미워지고 껌딱지 같아

서 한때는 마리아를 떼어내느라 속앓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제 몫이라고 여기고 늘 함께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잠도 마리아와 같이 자고, 목욕도 함께하고, 화장실도 같이 드나들다 보니 어찌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웬지 허전한 느낌마저 들며 불안해지기까지 하는 자신을 볼 때 저는 주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정신을 차려야지. 모든 게 더 좋아지고 있어! 걱정일랑 접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 딸과 함께.’ 마리아를 주님께서 제게 주신 큰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게 살자고 다짐합니다.

저희 성당 원장수녀님께서 마리아가 성물방에서 청소도 하고 심부름을 하는 것을 지켜보시며 매번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니 신이 난 이 아가씨는 일주일에 두 번 하는 봉사 요일을 꼭 기억하고는 엄마 손을 붙잡고 빨리 가자고 챙기곤 합니다. 어느 날 수녀님이 저희 모녀에게 부탁할 게 있다며 찾으셨습니다. “모니카 자매님, 재능 기부를 좀 하셔야겠어요.” “재능 기부라고요? 무재주가 재주인 우리들이 무슨?” “마천동 작은 예수의 집에서 장애를 가진 여학생들과 함께 지내시는 수녀님의 부탁인데요, 수

너님의 부탁을 받는 순간 모니카 자매님과 마리아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들의 공부를 맡아 달라는 어려운 부탁이라며 조심스럽게 저희 모녀의 눈치를 살피셨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두 번 <놀멍! 배우멍!>에 가서 4~5시간 동안 4살~12살 아이들 4명에게 통합교육으로 접근해 보자고 그곳 수녀님과 의논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날 이후 종이학 접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갖다주기 위해 서입니다. 싱글벙글 웃으며 열심히 종이학을 접는 마리아 옆에서 이 글을 씁니다. 감사하죠!

토요일 특전미사 전후로 성물방 봉사를 하고, 성체조배실 청소까지 하고 귀가하는 시간은 우리 모녀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집까지 걸어서 20분을 오는 동안 절로 콧노래가 나옵니다. 먼저 묵주기도 1단을 바치고 동요에서부터 최신 유행가, 또 ‘You raise me up’을 크게 소리 내어 부르며 오다 보면 어느새 집 앞에 도착. 무사 귀가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녀가 건강하고 즐겁게 함께 생활할 수 있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신 이 기회와 수녀님들의 배려, 건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녀를 아주 많이 사

랑하시듯이 저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야 하기에 성당 아저씨께 받은 꽃송이를 집 앞 지하에 사시는 노인정 할머니들께 전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노인정 할머니들은 오늘도 꽃을 받고 웃으시며 “또 놀러와! 기운 없을 땐 저녁 먹으러 와!” 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하하하 웃으며 주님 보시기에 더욱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한평생 모든 날에 호의와 자애만이 저를 따르리니 저는 일생토록 주님의 집에 사오리다.”(시편 23,6)

사라이의 몸종 하가르는 사라이를 피하여 도망치다가 광야 샘터에서 하느님의 천사를 만나고 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을 “당신은 ‘저를 돌보시는 하느님’입니다.”(창세 16,13)라고 말합니다. 창세 16장에 나오는 하가르의 하느님 체험을 묵상하면서 나의 하느님 체험을 쓰십시오.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며

김현주(베르나데타) · 이터닝학습 1학년

둘째 아이가 심장에 문제를 안고 태어났는데, 그것이 폐동맥과 성대에도 영향을 주어 생후 한 달이 되자 점점 울음소

리가 나지 않게 되었다. 아기가 울면 혈액 내 산소 부족으로 인한 청색증이 오기 때문에 한시도 옆을 떠나지 않고 선잠을 자면서 숨이 차기 전에 바로 젖병을 물리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며 조마조마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태어난 지 70일이 되었을 때 심장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 큰일을 치를 뻔했다고 의사 선생님이 전해 주셨다. 수술한 갓난아이가 몸에 호스를 5~6개 꽂고 단식을 해야 해서 공갈젖꼭지만 쪽쪽 빨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울음소리도 없이 울 때, 아기를 바라보는 나(엄마)의 마음은 표현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수술 후 첫 주일, 병원에 있는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렸다. 그런데 어찌나 힘들던지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껏 울어본 적이 없는 내가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펄펄 하염없이 울며 기도했다. 그때 의지할 곳은 주님뿐이었다. 주님께 의탁할 수 있어서 그 힘든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었다. 점차 아기의 심장도 좋아지고 비대한 폐동맥도 줄어들어 성대를 누르지 않게 되자 울음소리도 점점 커졌다.

수술이 잘 되어 정상인과 같은 심장

으로 건강하게 자란 아들은 지금 중학교 1학년 사춘기에 접어들어 종종 엄마속을 뒤집어 놓기도 한다. 또 불멘소리로 계속 미사 복사를 해야 하나며 투덜대지만 막상 복사를 설 때는 제법 의젓하다. 하느님의 섭리로 주어진 이런 평범한 일상이 때때로 가슴 벅차 목이 메기도 한다. 모태 신앙으로 하느님을 만난 지 40년이 넘어서야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신명 6,4-5) 현재 나의 삶 안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살아가고자 희망하는지 쓰시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요

황순경(베로니카) · 이력영학습 1학년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윤베드로 신부님께서 성령기도회에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면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마을을 향하여 강복을 하시고, 성체조배실에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외출하고 들어오면

주님과 성모님께 큰절을 하시고, 메주교리 성모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주무신다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자주 죄에 넘어지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고백하고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청하고자 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하루 어떠한 일이 생겨도 주님께 봉헌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몸이 아프면 “이 고통 또한 영혼들을 위하여 봉헌합니다.” 하고, 출근할 때 주님과 성모님께 “잘 다녀오겠습니다. 집 잘 지켜주세요.” 하고 인사드리고 나와서 도로의 무법자인 오토바이나 택시 운전자들을 보면 “이들을 지켜주세요.”라고 화살기도 올리고, 자가용이 없으니 버스 타고 가며 묵주기도하고, 회사 앞을 걸어갈 땐 따스한 아침햇살에 잠시 멈추어 주님께 감사기도 올리고, 엘리베이터의 편안한 유혹을 물리치고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기도 바치고,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점심 먹을 때 당당하게 식사 전 기도 바치고(그래야 내가 가톨릭 신자임을 당당히 밝히고, 신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하느님의 자

녀로서 좀 더 겸손하고 언행을 조심 또 조심할 수 있기에), 3시에는 시계알람을 맞춰놓고 ‘자비의 기도’ 5단을 바치려 애씁니다. 퇴근해서 집에 가면 저도 주님과 성모님께 인사드리는데, 남편이 비신자(제 신앙생활을 아직 이해 못함)라 같이 퇴근하면 90도 인사드리고, 혼자 퇴근하면 큰절 올려요.

주님 뵙는 게 즐거워 이젠 다른 모임이나 만남 횟수를 줄이고, 되도록이면 평일 저녁미사에 참례하고,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성체조배를 하며 단순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체를 통해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세포 하나하나에 현존하고 계심을 늘 잊지 않고 주변의 어둠을 비추는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부활이 기록된 마르코복음서 14-16장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말씀에 머물러 묵상한 후, 이 말씀과 연결하여 나의 구체적인 체험 혹은 결심을 적어보십시오.

저는 아니겠지요?

김현실(도로테아) · 이리닝학습 2학년

“저는 아니겠지요?”(마르 14,19)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마르 14,29)

수난 복음을 읽을 때마다 신경이 쓰였지만 애써 외면하며 넘어가곤 했던 부분입니다. 미사 강론이나 영성서적에서 나에게 해당되어 짐짓 찢리는 부분이 있어도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잘하고 있는 거죠?” 하며 저 자신보다는 다른 이들에게 눈을 돌렸던 저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항상 성당 일에 열심이고 착하고 부지런하다는 평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가정 안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에게 함부로 했던 저입니다.

제 신앙의 기준으로 보아 맞지 않으면 나보다 신앙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아직 멀었다고 비판했던 바리사이 같은 저입니다.

욕심만 많아서 성당에서 시키는 일은 죄다 한다고 하고 마르타처럼 뛰어다니기만 했지, 마리아처럼 차분히 예수님 곁에 앉아 당신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은 소홀히 한 저입니다.

베드로처럼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 장담하면서도 매년 부활을 형식적 행사로 지내온 저입니다.

너무나 많은 죄들을 지으면서도 예수

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스스로 되뇌이며,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쉽게 용서해 버린 저입니다.

눈을 떴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 느끼고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참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주변의 다른 자매들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저는 아직도 멀었나 봅니다. 언제쯤 주변 이웃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의 뺏속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매번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는 제 교만한 모습이 부끄럽기만 할 뿐입니다.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가 저도 베드로처럼 난관에 부딪혔을 때,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순기간 동안 저희 본당은 성체신심 세미나를 7회에 걸쳐 행했습니다. 특히 성체조배에 관한 묵상과 나눔을 많이 가졌고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삶에 대해 말씀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전에는 감당하기 힘든 큰일이 생겼을 때만 성체조배를 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성체조배를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가능한 한 시간을 만들어 성체조배를 하기로 결심하였고 또 현재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직 분심이 많이 들고 목상이 쉽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앉아있을 때 제가 느끼는 평화는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체조배를 통해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어떤 경우여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믿음을 굳혀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능력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봉사가 당신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제가 지은 죄의 보속으로 여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부님과 수녀님, 신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당신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당신과 함께하는 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신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제가 당신을 배반하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시고, 설사 제가 당신을 배반하는 일이 있더라도 유다처럼 죄의식에 빠져 마음대로 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회개하며 당신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토빗이 아들 토비아에게 남기는 유언을 읽고 묵상한 후,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족이나 친지, 혹은 친구에게 남기고 싶은 말(신앙적으로 당부하고 싶은 내용)을 편지나 유언의 형식으로 작성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딸아!

전영란(클라라) · 이레닝학습 4학년

딸아,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것 중 가장 탁월한 선택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란다. 살아오면서 무지하여, 하느님을 알지 못하여 지은 죄가 참으로 많구나.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들, 더 일찍 하느님을 알았더라면... 하지만 다 하느님의 뜻이려니 하고, 이제라도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니 참으로 행복하구나.

너희는 감사하게도 유아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딸이기에 참으로 감사하구나. 하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다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더구나. 내가 하느님께 사랑받는 행동

을 할 때 진정한 하느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공부를 했으면 한다. 친구를 사귀려고 해도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사귀지 않느냐?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고 하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더구나.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생활을 할 수 있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단다. 네 인생을 오로지 돈만을 벌기 위해 소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네 주위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란다. 금전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네 재능도 나누어 줄 곳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느님께서 누구에게나 나누어 줄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봉사나 자선은 용기가 필요하단다. 그리고 네가 한 봉사나 자선에 대해 보답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네가 주었으면 그것으로 끝내야 한단다. 대가를 바라면 참으로 힘들어지거든.

그리고 가끔씩 여행을 가기를 바란다. 넓은 세상을 보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사귀어라. 인생 길엔 멘토가 필요하단다. 토비아의 안내자로 오신 라파엘 같은 멘토가 있다면 참으로 좋겠지. 하느님을 진실하게 믿는 신앙인이 라면 참으로 좋은 멘토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싶은 말이 참으로 많구나. 늘 하느님께만 마음을 쓰고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딸아, 하느님께서 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엄마도 널 사랑한다, 아주 많이...

미사의 말씀 전례에서 제1독서가 끝난 후 바치는 화답송은 거의 대부분 시편의 말씀으로 되어있습니다. (가) 화답송으로 바치는 시편 중 마음에 와 닿는 시편을 몇 구절(2-3구절)을 쓰고, (나) 선택한 구절에서 마음에 남는 한 구절을 택하여 그 말씀을 통한 체험이나 묵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인간이 무엇이기에...

박현숙(아네스) · 이터닝학습 4학년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

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시편 8,4-5)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에 편입을 하였습니다. 자연과학을 학습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이제까지 먹어왔던 음식물들이 얼마나 엄청난 과정을 거쳐 온 기적의 산물 인지를 깨닫게 되어 이제사 제대로 인간이 되는 느낌이었습니 다. 그래서 올해는 가까운 곳에 텃밭을 하나 얻어 실습을 겸하게 되었지요. 왕초보라 풀 뽑는 것도 시원치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는 있지만 아침마다 텃밭으로 달려갈 때 느끼는 바람결, 햇빛의 찬란함, 흙에 대한 경외감 등은 육식을 바라보는 나이에 체험하게 되는 신세계입니다. 흙 속에 사는 이름 모를 곤충들에게 인사를 전하면서 벌레보다 못하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내 삶을 되돌아보고, 하루가 무섭게 쑥쑥 자라나오는 풀들과 씨름하면서는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잡초들도 함께 뽑아냅니다.

전공으로 배우는 곤충학에 의하면 곤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곤충과 곰팡이가 없으면 생명이 순환할 수 없어서 인간도 존

재할 수가 없네요. 징그럽고 귀찮은 생물체로 여겼던 작은 곤충도 하느님의 귀한 창조물이고 하느님의 요긴한 도구이며 인간이라는 권리로 함부로 짓밟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흙을 만지면서 진정한 소유의 의미도 발견했지요. 이제껏 돈을 주고 땅을 사야 땅의 주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요, 진정한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을 경제적 잣대로만 생각하는 안 되는 거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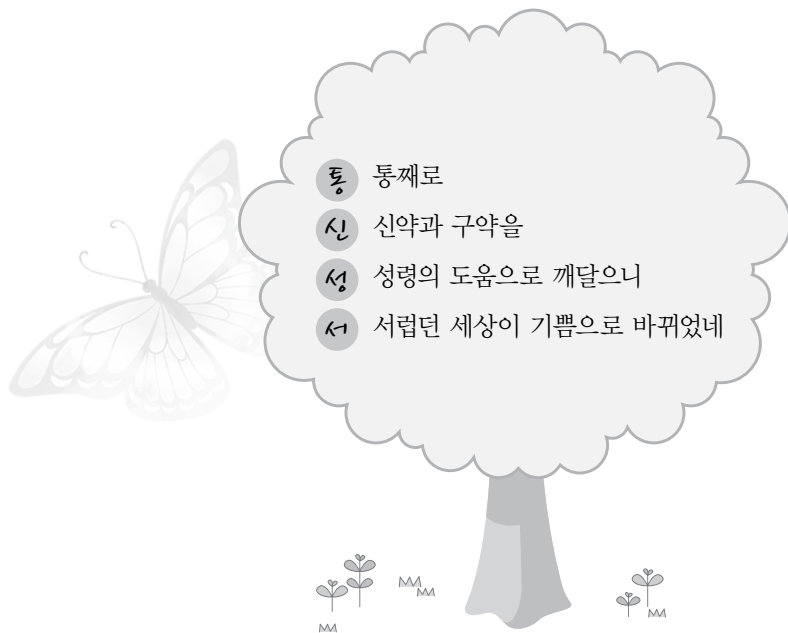
봄벌이 따갑고 때로는 봄바람이 매섭기도 하지만 그 연약한 몸으로 흙을 비집고 올라오는 시금치, 쑥갓 등과 인사를 하노라면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느님을 찬양할 수밖에요. 내가 시금치에게 한 일이라고는 씨를 뿌리고 흙을 덮어준 것밖에는 없는데 햇빛을 비추시고 바람을 일으키시고 비를 뿌리셔서 그 작은 씨앗에서 이렇듯 풋풋한 푸성귀를 만들어 내시다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느님은 이렇게 대단한 역사를 하시어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내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호사를 누리게 하십니까?

돈이 조금 없어도, 아들이 취직 시험에 자꾸만 떨어져 애간장이 녹아들어가

도, 이 또한 호미질을 하듯 내가 일구어
가야 할 삶의 한 과정임을 깨달으면 참
기쁨이 내 안에서 우러나옵니다. 텃밭
에 자라고 있는 작은 채소들은 그 뿌리
를 흙에 대고만 있으면 저절로 자라나네
요. 내 삶의 뿌리도 하느님께로만 뻗어
있으면 그분께서 알아서 가꾸어 주시겠
지요. 농학을 공부하고 텃밭을 일구며,

시청각통신성서를 통하여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행복해서 하느님
께 이 시편을 자주 아뢰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리러 당신
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인간이 무엇이
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제가 당신께 무엇을 하였다
고 이런 사랑을 부어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자아계시 ‘길 진리 생명’(요한 14,6)과 ‘착한 목자’(10,11,14)의 연관성

민남현(엠마) 수녀*

들어가는 말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신원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밝혀진다. 제일 먼저 더러운 영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본다(마르 1,24; 루카 4,34). 그 다음으로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마태 16,16; 마르 8,29)라는 신앙고백을 하고 군중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목격하고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아본다(마르 11,9).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세상에 결정적으로 선포되는 때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목격한 백인대장이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마르 15,39; 마태 27,54; 루카 23,47)라고 고백하는 순간이다.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표면적으로 선언하시는 때는 유다 최고법정 앞에서 심판을 받으실 때다(마르 14,62; 마태 26,62-63).

반면에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메시아로 소개된다. 예수님이 누구

* 성바오로딸수도회 수녀로 이탈리아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후 성서신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2006년 같은 대학에서 <선포자, 사도, 스승(1티모 2,7; 2티모 1,11): 바오로 서간에 나타난 가르침의 특징적 요소>로 성서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에 출강하고 있으며, 지은 책에 『성경의 노래』, 옮긴 책에 『나자렛 예수-유년기』 등이 있다.

신지를 정의하는 중요한 그리스도론적 칭호들이 공생활 준비기에서 이미 언급된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신원이 공생활 절정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명료하게 밝혀지는 것과 달리 요한복음서에서는 복음서 시작부터 예수님의 신원이 분명히 명시되는 이유는 요한복음사가의 신학적 목적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곧 공관복음사가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수신자에게 다가간다면 요한복음사가는 ‘계시된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문제를 핵심으로 삼는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복음서를 쓴 목적에 대해 설명한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20,31)

이 구절에서 저자가 복음서를 저술한 목적이 두 가지로 드러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활동과 가르침을 사건의 전개방식이 아니라 의미적 차원에서 보도하면서 수신자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요한복음사가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 직접적으로 당신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여러 상징적인 표현을 제시한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6,35,48),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6,41),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6,51), “나는 세상의 빛이다.”(8,12; 12,46), “나는 착한 목자다.”(10,11,14), “나는 양들의 문이다.”(10,7,9),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다.”(11,25),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14,6), “나는 포도나무다.”(15,1,5)

예수님의 신원을 설명하는 이 다양한 자아계시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는 중심적인 표현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이라 생각된다. 이는 예수님의 신비스런 존재 의미를 함축적으로 묘사하는 전체성을 지닌 표현이다. 이 자아계시에 사용된 세 용어의 의미가 매우 함축적인 만큼 그 의미를 알아듣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한복음서에 제시된 또 하나의 자아계시 “나는 착한 목자다.”(10,11,14)의 뜻과 연관시켜 봄으로써 ‘길·진리·생명’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예수님의 자아계시 표현, “나는~이다 ἐγώ εἰμι”

요한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예수님의 자아계시 표현인 ‘나는~이다.’는 공관복음서에서 ‘하느님의 나라는 ~와 같다.’라는 표현과 대조를 이룬다. 공관복음사가들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통해 주려는 메시지를 요한복음사가는 예수님의 자아계시를 통한 존재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신원을 매우 단순하고 분명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 “나는 ~이다.”라는 표현이 26번이나 사용되는데 이는 깊은 그리스도론적-신학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 표현 안에는 아버지 하느님과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성이 드러난다. 자아계시의 표현에 사용된 다양한 상징적인 말들은 예수님이 당신과 아버지의 내밀한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다. 곧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의미를 아버지와의 관계성 안에서 설명하신다.

또한 “나는 ~이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다. 곧 예수님은 하느님과 같은 위격을 지니셨음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때로 서술어 없이 주어 동사만을 사용하여 ‘나다 ἐγώ εἰμι’라고 당신을 계시(6,20; 8,24; 8,58; 13,19; 18,5,6,8)하시기도 하는데 이는 구약성경에서 하느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표현 방식이다. “내가 바로 그다. אֲנִי הוּא”(이사 43,10) “나, 바로 나 אֲנִי אֲנִי”(이사 43,25)가 70인 역에서 ‘ἐγώ εἰμι’로 번역되었다.

예수님의 ‘ἐγώ εἰμι’는 당신의 존재론적 신원을 밝히는 표현으로 ‘나는 나다.’라는 의미이며 구약성경에서 하느님이 ‘나는 야훼다.’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말은 모세가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하느님을 만났을 때 하느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하느님의 이름을 연상시킨다(탈출 3,14).

또한 예수님의 이 자아계시 표현은 당신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할 대상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예언서에서도 하느님의 절대적인 우월성과 유일성을 강조할 때 ‘나는 야훼다.’라는 자기계시의 표현으로 제시된다(이사 45,5; 45,6; 45,18; 45,21-22; 46,9; 호세 13,4; 요엘 2,27).

결론적으로, 구약성경의 하느님 자아계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예수님

의 이 자아계시 표현은 예수님 자신이 하느님의 완전한 계시자임을 시사한다.

2.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14,6)

14장 6절은 1-11절의 본문에서 중심역할을 한다. 2-5절은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한 이야기로 미래적 관점인 반면에 6절은 예수님의 자아계시가 현재시제로 제시되고 11절까지 미래시제 동사가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의 존재의미와 역할이 현재성을 지닌 것으로 강조된다. 곧 2-5절은 예수님에 의해 마련될 새로운 앞날을 이야기한다면 6-11절은 신앙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절대적인 존재의미를 지니고 계신 분임을 부각시킨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신다는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물이해(5절-“주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는 매우 중요한 자아계시의 표현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ἐγώ εἰμι ἡ ὁδὸς καὶ ἡ ἀλήθεια καὶ ἡ ζωὴ”(6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된다.

길은 중재자이신 예수님, 진리는 계시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용어다. 예수님에게 적용된 길·진리·생명이란 세 낱말은 상호적인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한 가지 현실은 다른 두 현실들을 비추어 주는 역할을 한다. 곧 예수님이 유일한 길인 이유는 절대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며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이고 유일한 길이 되신다.

3. 길이신 예수님과 착한 목자

14,1-14절 본문의 핵심사상은 사실 예수님이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 본문에 길(ὁδός)이라는 용어가 거듭 나오고(4,5,6절) 길의 역할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묘사된다(6L).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느님께 가는 길을 직접 가시는 동시에 믿는 이들도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이 바로 그 길이 되신다.

구약성경에서 ‘하느님의 길’(신명 10,12; 11,22; 26,17; 30,16; 32,4; 1열왕 2,3; 이사

58,2; 미카 4,2)이라는 말이 복수 형태로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길(ἡ γῆ)은 하느님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명, 규정, 행위 방식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신학적-윤리적 의미가 담긴 인간이 지켜야 할 하느님의 법을 말한다.

요한복음에서는 길(ὁδός)이 윤리적 차원의 계명이나 규정의 차원 그 이상인 예수님 존재 자체로 소개된다. 이는 예수님의 존재적 가치와 역할의 절대적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 이르는 결정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

“나는 길이다. ἐγώ εἰμι ἡ ὁδός”라는 선언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6절)는 말씀으로 당신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한다. 길이신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의 여정을 통해 목적지인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한다. 아버지와의 친교에로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길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뜻은 곧 길이신 당신의 삶에 완전히 동화되어야 한다는 강한 초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길이신 예수님의 중재 역할에 대한 요한복음사가의 사상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바오로의 사상과 매우 유사하다(1티모 2,5).

길이신 예수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본문은 착한 목자에 관련된 구절이다. 10,16-17절에 길이신 예수님의 역할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예수님의 사명은 모든 이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중재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양들 곧 믿음을 지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양들 곧 다른 민족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우리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다. 한 목자 안에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 아버지와 인간이 친밀한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게 됨을 의미한다.

한 목자 아래 하나 됨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10,7)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곧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 되신다는 것이다. 공관복음서에서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 행위의 수단으로써 ‘문’(마태 7,13-14; 루카 13,24; 마태 7,7; 루카

11,9)이 상징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인격과 직접 관련시켜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소개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을 것이다.”(10,9)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분이므로 그를 통해서만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4. 진리이신 예수님과 착한 목자

일상용어에서 우리는 ‘진리’라는 말을 대부분 거짓과 반대되는 의미로 쓴다. 이는 사실과 이데아 또는 생각이 일치할 때 사용하는 말로서 그리스적인 사고와 유사하다. 반면에 히브리적 사고에서 진리(אמת)는 이성적 차원을 넘어 영원히 불변하는 확고함, 신뢰할 수 있는 완전한 충실성, 확실함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일컬어 진리(ἀλήθεια)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히브리어의 진리에 더 가깝다.

‘나는 진리다. ἐγώ εἰμι ἡ ἀλήθεια’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당신의 존재로 아버지의 진리를 계시해 줌으로써 아버지를 알게 하는 분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진리를 계시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 자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이나 사도들과 예수님이 존재론적으로 구별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곧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진리를 계시해 주는 존재일 뿐 아니라 당신 존재 자체가 영원히 불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충만한 진리라는 것이다(1,14 참조).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뵈는 것이다.”(7절)라는 표현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속성을 잘 설명한다. 곧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려주는 완전한 계시자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알다’(γινώσκω)와 ‘보다’(ὁράω)라는 것은 체험을 통한 관계성을 의미하며 그분이 바로 진리 자체이심을 개념이 아닌 체험으로 알게 되는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설명이다.

14,10-11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 됨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강조하는데 그분이 바로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기 때문이다(13,20).

“나는 진리다.”(14,6)와 “나는 착한 목자다.”(10,11,14)라는 자아계시 표현은 서로 상통한다. 착한 목자(ὁ ποιμὴν ὁ καλὸς)는 참(real, true) 목자(ὁ ποιμὴν ὁ ἀληθινός)의 의미와 같다. 1장 9절의 “참빛이 세상에 왔다.”는 표현에서처럼 참된 상태를 의미하는 ‘ἀληθινός’는 단순히 말한 사실과 현실이 동일하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 존재가 진실 자체임을 말한다. 10,12-15에서 착한 목자와 구원 능력이 없고 행위의 목적이 선하지 않은 삯꾼이 대조적으로 소개되는데 삯꾼은 도둑과 강도로서(8절)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1절), 곧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거짓 예언자 또는 거짓 종교자(바리사이나 사두가이파 등)를 가리킨다.

“나는 착한 목자다.”라는 자아계시 표현은 구약에서 약속된 사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부각시킨다.

10,14-15에서 ‘알다 γινώσκω’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다. 그리스적 사고에서 안다는 것은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여 확인하는 지적 인식을 가리키는 반면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경험적인 차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목자와 양들의 상호적인 앎은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상호적인 관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거는 착한 목자가 참 목자임을 강조한다. 이 앎은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요한복음서에서 믿는 행위가 관계성과 관련된 것임을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과 연관된 것으로 표현되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곧 예수님께 오는 행위 ‘ἔρχομαι’(3,20,21; 5,40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7,34,36,37; 10,41; 14,6)와 따르는 행위 ‘ἀκολουθέω’(1,37,38,40,43; 8,12; 10,4,5,27; 12,26; 13,36,37; 21,19,22)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동일시된다(6,35,37,44,45,65).

10,17-18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적 관계성이 부각된다. 아버지의 뜻에 대한 아들의 완전한 순명과 아버지의 사랑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이로 인해 아들은 아버지의 완전한 계시자, 진리가 되신다.

5. 생명이신 예수님과 착한 목자

“나는 생명이다. ἐγώ εἰμι ἡ ζωή”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분명한 신원을 드러내신다. 요한복음서 전체에서 생명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는데(1,4; 20,31) 예수님만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한 분으로 소개된다. 이를 잘 설명하는 다른 구절은 “내가 생명의 빵이다 ἐγώ εἰμι ὁ ἄρτος τῆς ζωῆς.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6,35)라는 말씀이다. 이는 예수님이 어떤 물질적 양식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바로 생명을 주고 생명을 지속시키는 빵이라고 계시하시는 것이다. 이 생명은 예수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에게 오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는 ‘나를 믿는 사람’과 같은 의미다. 곧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써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계시기에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11,25)라는 말씀이 이를 뒷받침한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부활과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진리를 믿게 하기 위해 라자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표징을 행하셨다.

착한 목자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선교 목적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으로 분명히 드러난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을 것이다.”(10,9)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구원과 풀밭은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착한 목자는 도둑이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과 달리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서 양들의 생명이 되신다(10,11).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를 가리켜 ‘세상, 양, 백성을 위하여 ὑπέρ’(6,51; 10,11,15; 11,50; 18,14) 생명을 바치다.’(10,11,15,17,18; 13,37,38; 15,13)라는 표현으로 요한복음서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목적을 지닌 가장 고귀한 사랑의 행위임을 잘 설명한다.

나가는 말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은 첫 제자들이 당신을 뒤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1,38) 하고 물으신 장면에서 들을 수 있다. 이는 ‘누구를 찾느냐?’는 말씀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인간에서 건네신 첫 번째 말씀도 바로 이 물음이다. 울고 있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누구를 찾느냐?”(20,15) 하고 물으신다. 이렇듯 인간의 삶은 주님을 찾아 늘 떠나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 걸어가는 여정이다. ‘나는 ~이다.’라는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관계의 신비 속으로 이끈다. 예수님이 ‘나’라는 대명사를 이용해 당신을 계시하실 때 ‘너’라는 대상인 우리가 당신 앞에 현존해 있음을 의식하시는 표현이다.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듯한 표현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과 “나는 착한 목자다.”라는 자아계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친밀한 통교의 관계임을 의식하게 하고 그분이 우리 삶의 전부라는 것을 일깨운다.



나를 쇄신하는 공부

김종순(요한 크리스토포로) · 성바오로 신학영성 1학년

+ 찬미예수님

자연의 오묘한 순환질서는 추운 겨울과 따스한 봄의 극한 대비를 통하여 변화의 기쁨과 새로움의 희망을 선물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무상으로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통신성서 가족 여러분!

저는 7년 전 우연히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오랜 영혼의 방황(냉담)을 끝냈지만 유아세례 받은 구교 신자들이 종종 그러하듯이 신앙생활에 지극히 소극적이고 무지했으며 끝만 번지르르한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뭔가 채워지지 않은 배고픈 상태였는데 통신성서의 발견은 저를 스펀지로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성경공부를 하여 하느님과 친교를 맺는 동시에 학문적인 지식과 영성을 흡수하여 지적인 신자가 되고픈 허영심까지 발동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통신성서 학교생활은

새로 입학한 새내기 대학생처럼 즐거웠고 새로운 탐구에 신이 났습니다. 특히 1학기 첫 연수회에 이르러서는 기쁨의 정점에 이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온라인 상으로만 소속되어 있던 동기들을 만나면서 '아, 이제야 하느님 학교에 다니는 동기들이 실존하는구나.' 하는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만나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지는 나눔의 시간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저에겐 참으로 충격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신앙생활 속의 자신을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서로 공감하고 심지어 격한 감정에 울음까지 삼키며 깊은 대화를 하고 발표에 이르는 과정은 사회에서 하는 연수와는 전적으로 다른 신비로움이었습니다. 아마도 제 안에 계신 성령과 통신성서교육원을 설립하신 복자 알베리오네 신부님께서 이끄는 신비의 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충격과 신비가 제가 6년 동안 연수회를 한 번도 거르지 않게 한 동력이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통서가족 신부님, 수녀님, 선후배 동문님들!

통신성서는 저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고, 하느님과 친해지는 통로인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듯이

마귀의 유혹이 도처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3년 정도 지나고 나니 슬그머니 잔꾀가 나면서 게을러지고 자꾸 학습하기가 싫어졌습니다. 6년은 너무 지루하니 적당히 이쯤에서 나만의 졸업을 할까 하는 유혹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4학년 때 저와 함께 동기로서 부부로서 공부해 온 아내가 학습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당시 아내는 큰 수술을 한 후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했고 팔이 아파 글씨를 쓰기 어렵다는 휴학 사유를 내세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유혹의 손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공부를 중단했지만 저는 4년을 버텼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는 굳은 결심을 다시 하고 남은 2년의 중급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된 졸업식에서니 그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솔직히 6년의 과정은 길다면 긴 편입니다. 특히 학교생활을 오래 전에 마친 사람으로서 교재와 성경을 읽고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간절히 청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하는 학업처럼 어떤 성공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기에 부담 없이, 초조할 필요도 없이 이 공부를

통하여 하느님을 건성으로 알았던 자신을 쇄신하는 기회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제 나이와 같은 기간인 60년 이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지만 솔직히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고,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제가 6년간 말씀공부를 한 것이 대견하게 느껴지고 이제는 책임감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몰라서 그랬으니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어리광이 통하리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그것입니다.

기회와 위기는 같이 온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현대인의 불행은 분명한 위기입니다만 이에 반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가치관을 정립하는 말씀공부는 복을 만드는 기회라고 봅니다. 돈과 물질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진리는 말씀의 깨달음에서 옵니다. 또한 말씀은 이야기책이나 지식공부가 아니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공부해야 한다는 것도 통신성서를 통해 얻은 각성입니다. 이제는 제 안의 성령님께 간구하여 이러한 평범하고 작은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이 졸업 후 실천과제라고 봅니다.

졸업하기 즈음하여 고지된 성바오로 신학영성 2년 과정을 등록할지 말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과감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졸업 연수회에 참석하면서 다시 번민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졸업식 후 늦었지만 영성 과정을 등록했습니다. 교육원 수녀님들이 물론 제게 동기를 부여하였고, 6년간의 체험이 저를 인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년간 성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큰 깨달음과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바쳐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큰 과제는 제 아내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원 수녀님들과 통서가족 동문님들, 기도해 주세요.

통서가족 여러분! 우리 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하느님의 복음을 실천하는 수녀님들을 위하여 건배합니다. 존경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졸업은 새로운 시작

장정숙(클라라)·25회 졸업생

용산성당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고 자라던 고3 어느 날, 보이지 않는분의 이끄심으로 성당을 찾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녀님의 안내로 교리반 학생이 되어, 320문항의 요리 문답을 열심히 배우고 외웠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시험으로 신부님 앞에서 사도신경과 주님의 기도를 외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찰고 후 세례받을 자격을 얻은 저는, 성탄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도 개입하셔서 인간 역사를 주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제게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분은 모세에게 “나는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신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세례 후 청년 빈첸시오회와 성가대에 활동하다가 결혼 후 경기도 장흥에 동지를 틀었습니다. 7년이 지나 시아버님의 폐암 선고와 남편의 폐결핵은 생활고와 겹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다음날을 걱정해야만 하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도 고단한 노동의 휴식을 묵주기도로 마무리하시는 신앙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임종 전 성가 151번 ‘주여 임하소서’를 진통제에 취해 여러 번 부르시더니 저를 불러 앉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은 물려줄 것이 없지만, 신앙을 저버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신앙을

지켜 나가기에는, 하느님 현존 체험이 없었던 터라 저는 질곡의 세파에 밀려 주저앉기를 반복하곤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정체성의 문제와 하느님께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는데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읽다 덮기를 반복하다가 말씀을 배우기로 결심하고 제가 사는 경기도에서 명동성당을 오갔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 본당에도 성경공부반이 생겼으나, 구약과 신약의 맥을 관통하고 싶은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 나를 지켜보던 큰딸이 통신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면서 제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방법으로 해야 하는 공부 방법은 1학년을 마치자 휴학의 핑계거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학기에 재도전하였지만 6년 과정의 부담감과 바쁜 일상의 이런저런 핑계들로, 또 다시 기약할 수 없는 휴학의 유혹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 편에서 다른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그토록 간절히 찾았던 하느님 알기를 멈춘다면 다시 시작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방법을 찾아보니 가족이 잠들어 있는 새벽에 하느님을 만나는 나만의 시간이 있었

습니다. 하느님과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새벽 시간은 저의 닫힌 사고를 열어주었고, 구상 시인이 ‘두 이레 강아지만큼 눈을 뜨니 나를 공으로 입히고 살리신 은총에 감사하노라.’ 하셨듯이 하느님 말씀에 눈을 뜨니 세상은 감사와 은혜로움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안목이 바뀌니 성경 속의 무섭던 하느님은 인간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시고 인간이 고통스러우면 함께 아파하는 분이셨습니다.

창세기는 혼돈에서 질서 잡힌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일상의 혼돈도 외부 현상이 아닌 내 마음 자리에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스모스는 우주의 질서뿐만 아니라 내 의식 안에서 주인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균형을 잡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따 먹어도 된다. 다만 한 그루만은 안 된다.(창세 2,16-17 참조) 하느님과 인간의 투명한 친교가 깨진 것도 지음 받은 쪽의 불신과 순종하지 않은 결과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요즈음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현상에서 보듯 “안 된다.”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결

과로 생각됩니다. 인간의 탐욕은 먹거리의 증대라는 명분을 내세워 동물에게 가두리 사육과 호르몬제와 항생제를 과잉 주입하고, 식량증대라는 이유를 들어 유전자 조작을 하다 보니 그로 인해 알 수 없는 병들이 생겨나고, 그 결과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한 그루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하신 것은 인간이 꺾게 될 위험을 미리 알려주신 사례입니다.

열매를 따 먹은 후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원조가 범한 핑계라는 죄는, 인간의 선의를 바라시는 하느님을 의심하고 자기에게 해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율호자의 말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두 사람은 자신들이 알몸인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죄의 속성은 비굴해지고, 난폭해지고, 감추고, 숨으려 합니다. 하느님과 친교가 무너짐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이웃,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어긋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느님은 가죽 옷을 입혀주셨고 죄인의 끝인 죽음을 부활이라는 놀라운 하느님 사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님 사랑을 매 순간 먹고 사는 저는, 성령의 도움으로 의인들과

죄인들이 종국에 이르는 장소적 개념의 천국과 지옥이 아닌 마음상태의 천국과 지옥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제게 지혜와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예수님께서 하느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데에 근거합니다. 살면서 자신이 허락하여 짓게 된 해아릴 수 없는 많은 죄의 끝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주관으로 만들어낸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깨달음’을 주셨으며, 하느님과 이웃과 생명체들과 관계 설정이 새롭게 바뀌는 계기가 되었고, 용서받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됨’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기쁨으로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나이다.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노래합니다.

새벽에 저를 일으켜 세우신 말씀은, 6년의 과정으로 끝남이 아닌, 평생을 먹고 살아야 할 살아있는 빵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와 행복의 마음을 드립니다.

'복음의 기쁨'을 가르치신 하느님의 교육방법

이미자(가타리나)·성바오로 신학영성 수료

〈유학〉 아이들의 유학을 준비하며 부모가 학생비자를 받으면 자녀 학비 30% 할인이 되고 거기에 조금만 보태면 나도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계산기를 수없이 두드려 보고 떠난 유학길은 내 인생에서 학업에 대한 마지막 도전이며 모험이기도 했다. 떠나기 전 성경공부를 권유받았지만 내 목표(해외 학위와 자격증 취득) 달성 이외의 모든 것은 그 이후라고 생각했기에 귀담아 듣지 않았다. 새벽엔 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필사를 하고 있었기에 그것만으로도 말씀의 은총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처음엔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예정대로 원하는 기간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그토록 반대하던 이들에게 돌아가면 내 의지에 대한 자부심과 분명하게 보이는 성과를 과시하리라 마음먹었다.

그 후 건강 문제로 학업에 차질이 생겼을 때 새벽은 더 이상 하느님과 가까이 있는 은총의 시간이 아니라 '그분마저 나를 버리셨나?' 하는 절망과 의혹

속에 원망하며 울부짖는 고통의 시간이 되었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결국 내 계획을 인정해서 밀어주신 것이 아니었냐며 따져 물었고, 그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얼마든지 당신의 뜻대로 할 테니 지금은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애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내 계획을 접어야 하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 위기만 넘기면 곧 다시 시작해 보리라는 야심을 감춘 채 미루어둔 성경공부나 해보자는 마음으로 통신성서에 등록했다.

〈성경공부〉 놀랍게도 처음부터 '성경과의 만남'은 '삶의 차원, 모든 것을 내거는 모험이자 귀의이며 신앙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으로 나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심을 두고 내게 오시는 하느님과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었다. 그분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깨우칠 수 없는 방법으로 내 실존의 뿌리를 찾아가게 하였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하셨다. 성경공부를 하며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보낼 때 안타깝게도 내가 속한 한인교회는 사목회와 사제 간의 마찰로 한국어 미사가 없어져 주일에만 현지 성당에서 영어미사를 해

야 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에 갈등을 겪고 방황하며 위기의 시간을 보낼 때 나에게 성경공부는 분명한 신앙의 길잡이가 되었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성경을 모르면 하느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했듯이 세례받은 지 20여 년이 지나서야 하느님을 알기 시작한 나는 진리의 근원이신 그분을 모른 채 세상의 지식으로 무장하고자 했던 지난날이 한없이 부끄럽기만 했다. 하지만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나의 약점을 자랑삼아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싶었기에 성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자신에게 와 닿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혼자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두 사람이 몇 달을 한 후에 10여 명이 매주 모여 성경을 읽고 나눔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현지 성당 신부님의 지지와 격려 속에서 수녀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성경공부도 하게 되었고, 그 성당의 바자회에 한국 음식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기부하고 명절에는 한복을 입고 큰절을 하며 한국의 문화도 알리는 등 모두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교리공부〉 성경공부가 중급에 들어

서자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면서 내 삶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체험되는 예수님의 현존이 더욱 분명하게 느껴졌다.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다시 학업에 전념할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예수님만이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길이며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더욱 확실하게 믿게 될수록 신앙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분명히 안정된 상황이 아님에도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질수록 느껴지는 충만한 평화와 기쁨의 원천을 분명하게 알고 싶었고,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단지 주관적으로만 체험된 신앙고백인지도 혼란스러웠다. 현지 성당의 미사를 끝내고 한국인 사제가 없는 한인공동체의 기도모임에서 좀 더 깊은 신앙생활을 원하는 이들,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통해 신앙을 갖고자 하는 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왜 믿는가? 교회는, 그리고 신앙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되었다. 오묘한 하느님의 섭리는 성경공부를 하면서 그토록 많은 것을 궁금하게 만드시더니 그곳에서 교리공부까지 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교리교사로서의 소명을 찾게 하셨다.

한국에 돌아와 바로 입학한 교리신학원은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확한 교리지식을 바탕으로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소명에 확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처음 성경공부를 시작할 때는 학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성경공부는 뒤로 미루리라 생각했지만 하느님은 나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성취하고자 했던 학위나 자격증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신앙의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하시고 ‘신앙의 학문적인 이해’를 통해 그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열정을 갖게 하셨다. 그동안 내가 끊임없이 가졌던 의문이나 의혹 - 지성(이성)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의지가 작용하여 믿도록 충동하는 것과, 객관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는 주관적 진리로 체험된 신앙의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 은 지식(이성)의 차원을 넘어 신앙의 차원인 믿음이 기반되어야 함을, 즉 ‘지식보다 믿음이 더욱 근원적인 인간의 지평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다.

〈교재 연구〉 지난 해 구약중급 역사서 교재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참여하는 동안 ‘하느님의 명백한 현존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구약의 반복된 역사’ 안에서

내 이성과 의지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끊임없이 그분을 외면하고자 했던 나 자신을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비참한 유배의 경험을 신앙의 차원에서 재조명하며 그들과 하느님의 관계를 기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나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내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내 인생의 전환점과 위기의 순간에 만난 예수님을 기억한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느님과 나를 구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완전한 일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다. ‘비참하게 죽은 채 십자가에 매달린 당신이 무슨 전능하신 분이냐?’며 대들고 ‘여전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당신이 무슨 인간의 고통을 짊어지고 간 것이냐?’ 따져 물으며 ‘자유의지는 왜 준 것인지 모르겠으니 이제 도로 가져가라.’고 집어던지던 순간에 나에게 오신 예수님, 비참하고 처절한 고통 속에 애처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을 나는 기억한다. 위험한 순간까지 갔던 극심한 빈혈의 회복이 장시간에 걸친 인공적인 수혈로만 채워진 것으로 알았을 때 당신의 살아있는 삶과 피가 아니면 내가 일어설 수 없음을 알려주시려고 자신의 몸을 다시 내어주

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 그 새벽에 나에게 다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기억한다.

신구약 입문과 중급 과정, 그리고 성 바오로 신학영성 과정을 거치는 동안 참으로 다양한 사건과 인간관계 속에 개입하신 하느님의 섭리로 내 인생의 역사는 다시 쓰여졌다.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 여기며 시작한 유학의 길에서 그 계획을 접게 하신 이유를 몰랐을 때 시작한 성경공부는 내 실존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 안에서 나를 향한 하느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었다. 내 실존의 근원이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지 못했을 때 가졌던 열망이 맹목적인 ‘자기애’의 뒷에 갇힌 몸부림이었다면, 내 마음속 생각과 가치관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었을 때 진리의 근원에 대한 갈망은 자유로운 구속 안에서 사랑의 원천을 찾아가는 목마름이었다. 나의 계획은 내 힘으로 내 안의 결핍을 채우며 이루고자 했던 ‘현세적인 행복과 자기완성’이었기에 스스로의 비참함을 보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고, 진리의 근원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한 그분의 계획은 예수님의

현존 안에서 내 실존의 비참함을 온전히 보게 하신 후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움츠러든 나를 바로잡아 새로운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 새로운 삶의 형태는 내 삶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를 그분께 던지는 신앙생활이었고 그 안에서 나는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 신앙의 기쁨은 복음의 핵심으로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고, 나는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두는 가르침을 통해 내가 받은 온전한 사랑의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세상의 기준으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산하며 시작한 나의 거창한 유학 계획은 하느님의 심오하고 위대한 계획 안에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복음의 기쁨’을 배우고 선포하라는 그분의 교육방침이었다.

복음의 기쁨, 이시대의 징표

— 구약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복음의 기쁨」 —

최윤정(클라라) 수녀 · 5학년

들어가며

‘가난, 기쁨, 겸손, 단순함, 진정성, 희생, 해방신학, 백성, 자비, 개방, 실존적 변두리, 만남의 문화, 양의 냄새, 주변부의 주변부.’¹ 이는 사제·수도자·평신도 신학자들이 2013년 3월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된 프란치스코 교황을 설명한 단어들이다. 교황은 낮은 곳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관습이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파격적인 행보로 세계적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프란치스코 효과(Francis Effect)’라는 용어가 생길 만큼 교황의 말과 행동은 종교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시대의 징표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에 응답하는 모습이란 생각이 든다.

성경 안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이 바로 시대의 징표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의 기쁨」을 통해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발전을 이룬 현대세계에서 복음 선포의 사명을 살아가는 성



1. 가톨릭뉴스 - 지금 여기에(2014. 4. 3.)

직자 그리고 봉헌 생활자와 평신도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권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삶으로 보여주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알려주는 「복음의 기쁨」을 구약성경을 토대로 따라가 보자.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것은 교회의 첫 임무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의 기쁨」 15항에서 교회의 첫 임무인 선교 사명을 인식시켜 주고 있다. 오늘날 선교 활동은 다양한 도전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복음 선포자는 복음의 기쁨을 세상 모든 이에게, 모든 장소에서, 온갖 기회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두려움 없이 선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명(23항)을 지니고 있다.

복음의 기쁨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창세기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하느님께서서는 죄를 저지른 인류에게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창세 3,15)라며 첫 복음을 죄를 지은 인류에게 주셨다. 인간이 비록 죄를 지었으나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을 버리지 않으신다. 인류의 구원을 계속해서 바라시는²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의 소식으로 복음의 기쁨이 전해진다. 이 기쁨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 복음 선포자는 제자리에 서있으면 안 된다.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24항).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강한 구원 의지처럼 말이다.

하지만 복음 선포의 장인 이 시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발전은 이루었으나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극심한 양극화가 뚜렷한 시대가 되었다. 부와 권력을 누리는 계층이 생겨났고 반면 소외된 가난한 이들과 무관심 속에서 사라지는 이들이 생겨났다.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간의 존엄성이 다른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침해를 당하는 현실이다. 이에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살아있다는 기쁨을 잃게 되고 다른 이들에 대한 존중도 갈수록 결여되며, 폭력이 증가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흔히 인간의 품위마저 버린 채 살기 위해서라도 고군분투해야만 하는 상황(52항)을 교황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교회는 자기 안위만을 신경 쓰며 폐쇄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2. 안토니오 지를란다, 구약성경입문1, 바오로딸, 2007년, 158쪽

모습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거리로 나와 다치고 상처 받고 더럽혀지는(49항), 야전병원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시대가 가진 문제들 앞에서 교회는 지금까지의 선교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롭게 거듭나야만 한다.

구약성경 시대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있었다.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유목생활을 하며 양 떼를 포함한 가축들과 목초지, 우물 등을 부족이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러기에 사유재산은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삶의 형태가 바뀌었다.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야만 생존권이 보장되는 농경사회가 되면서 부족공동체 체제는 붕괴되고, 땅의 사유화 전쟁이 시작되었다. 또한 금욕적 정신과 윤리적 기반에 근거를 둔 유다인들의 계시종교와 달리 농경 생활에 맞춰 다산과 풍산을 추구했던 가나안의 자연종교로 인해 이스라엘의 종교는 강하게 흔들렸다. 이러한 문제들을 하느님의 뜻으로 평정하고자 예언자들이 등장했다. 예언자들은 소외 계층의 대변자로서 인간의 사리사욕이 중심이 된 사회를 고발하고,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은 하느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평등한 대우와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임을, 하느님과의 계약에 충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나아가 분열, 멸망, 유배시기를 거치면서 역사의 중심에서 대사회적 운동을 해나갔다.³ 교회, 현대의 복음 선포자는 시대의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교회가 기쁘게 선포하는 구원은 모든 이를 위한 것이기에 하느님께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당신과 하나 되게 하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113항). 하느님께서 인류를 향한 당신 사랑의 신비로 세례받은 모든 사람 안에 신앙의 본능, 곧 신앙감각(sensus fidei)을 심어주셔서 무엇이 참으로 하느님의 것인지 식별(119항)하도록 해주셨고, 이로써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하셨다. 구약의 예언자적 사명을 지닌 교회의 모든 구성원, 즉 세례받은 모든 사람이 복음 선포자인 것이다.

‘예언자’는 ‘남 대신 말하는 사람’으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예언자들에게 맡기셨고, 이들은 하느님의 권한과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언하는 하느

3. 김혜윤, *예언서, 생활성서*, 2012, 38-41쪽 참고

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사자가 포효하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으랴?”(아모 3,8)라는 아모스의 선포에서 완전한 주도권을 가진 분은 하느님이셨다. 태내에서부터 하느님께 바쳐진 예레미야는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걱정하여도 뺏속에 가두어 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예레 20,9)라며 하느님의 힘에 의해 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다. 이사야의 경우 죄를 지닌 인간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예언자의 소명을 받게 된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이사 6,6-7) 예제키엘에게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거의 물리적으로 넣어주신다.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여, 네가 보는 것을 받아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께서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여,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배를 불리고 속을 채워라.’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먹으니 꿀처럼 입에 달았다.”(예제 3,1-3)⁴

이렇게 하느님께서서는 예언자들이 지닌 인간적인 한계에도 그들을 부르시고 삶의 주인이 되셨다. 또한 하느님의 주도권에 사로잡힌 예언자들은 온전히 하느님께서 자신들 안에 담아주신 말씀을 선포했다. 그래서 그들의 선포는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로 시작하고 마쳤다. 하느님이 담아주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오늘날 복음 선포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자세는 기도를 통해 성령께 온순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는 노력이다. 복음 선포자는 성령을 통해서만 자신이 지닌 인간적 나약함, 자기도취, 안주하려는 이기심, 탐욕이라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을 활짝 열어 담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시류를 거슬러 복음을 선포(259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복음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의 기쁨」 제3장 〈강론〉 부분에서 이를 자

4. 김혜윤, 예언서, 생활성서, 2012, 43쪽 참고

세히 다루고 있다. 말씀에 대한 겸손과 경외하는 존경의 태도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은 사제뿐 아니라 세상이라는 본당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복음 선포자에게도 해당되는 자세다.

복음 선포자 자신이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으며 그리스도께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언제나 그분 사랑이 결정적이라는 확신(151항)으로 복음을 선포한다면 그 말씀은 힘이 있고 살아 움직이며 하느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것(279항)이다. 참된 복음의 기쁨을 살고 전해야 한다.

예언자들은 하느님께서 어느 때라도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 또 제도들과 책임자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이를 각성시키기 위해 개입하기로 유보해 두신 자유를 대표한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계약의 정신과 상합하지 못한 기존체제나 사고방식 또는 행동에 항상 '의의를 제기하는 자'로 등장했기에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과 충돌하였다. 눈엣가시 같은 불편한 존재로서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때로 투옥시키거나 살해하는 일들이⁵ 일어났다. 그럼에도 예언자들은 하느님께서 담아주신 말씀을 선포한다. 그리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이사 61,1)하여 어둠 속을 걷던 백성에게 큰 빛을,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사 9,1 참고)을 비추는 중개자의 역할을 해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한 이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끊임없이 드러냈다. 「복음의 기쁨」 안에서도 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현대 세계에서 ‘복음화의 사회적 차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음화 사명은 참됨을 잃고 그 본질적 의미가 왜곡됨(176항)을 일깨워 주고 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도 보았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어라.”(탈출 3,7,9-10)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으

5. 안토니오 지를란다, 구약성경입문2, 바오로딸, 2007년, 15-16쪽

신 하느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듯이 우리도 보내고 계신다(187항). 모세와 같이 파견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들, 가난한 이들, 상처받기 쉬운 이들,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이들, 복지와 번영에서 멀어진 이들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파라오에게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라고 모세를 부르셨고 파견하셨다. 힘을 가진 자에게 가서 힘없는 이들을 대변하라고 보내셨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가진 것 없는 이들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권력과 부를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면서 가진 것 없는 사람은 더욱 헐벗게 되었고 지역 사회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모세를 보내신 것이다. 이들에게 복음 선포자인 교회를 보낸 것이다. 그러기에 교회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어 그것을 누리게’(1티모 6,17) 하셨기에 그리스도인은 사회 질서와 공동선 추구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182항)해야 한다. 정의가 모든 정치의 목적이고 고유한 판단 기준이라면 교회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비켜서 있을 수 없으며 그래서 안 되기에 가톨릭 교회는 교리의 성찰 단계든 실천 단계든 사회 분야에서 다른 교회들과 교회 공동체들의 노력에 기꺼이 동참(183항)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복음화의 사회 차원〉 전반에 걸쳐서 경제적 가난에 대한 언급이 중심이 되었기에 정의를 위한 투쟁이 경제적 분배에 국한되는 느낌을 받는다. 경제적 분배와 함께 부의 축적으로 강력해진 이들의 억압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한국 현대사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권력의 억압은 평범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하였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무고한 시민들은 권력의 총 앞에서 쓰러졌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도 부패된 권력의 힘을 보여주는 예이다. 특정 권력과 힘을 지닌 이들간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권력의 남용에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합쳐져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와주면서 동시에 부패된 권력에 대해서 예언자적 소리를 내야 한다. 그것이 진정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의 기쁨인 것이다.

나가며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고, 예수님께 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죄와 슬픔, 내적 공허와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1항)이 끊임없이 생겨나도록 초대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이 체험하고 살아온 복음을 「복음의 기쁨」을 통해 전하고 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교황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의 예언자적 소명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 소명은 교황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의 소명인 것이다. 우리는 나약하다. 인간이기에 인간이 지닌 약함은 늘 함께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대의 징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자신이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는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하느님께서 이 시대의 징표로 보여주신 예언자의 모습, 예언자의 소명에 감사드리면서 이를 현대 세계에서 살고 전하는 우리 각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겠다.

교황 프란치스코, 자비의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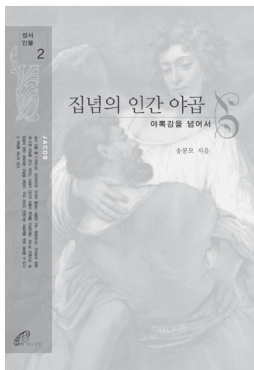
줄리아노 비지니 엮음 | 김정훈 옮김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희망의 불꽃이 꺼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현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인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선을 실현하고, 악에 물드는 대신 선으로 악을 이겨내도록 노력하십시오. 교회는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요한 10.10)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보배로운 신앙의 유산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297쪽)

집념의 인간 야곱

황정아(멜라니아) · 1학년



“인간의 욕망이 바로 그의 운명이다. 왜냐하면 그의 욕망이 다름 아닌 그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그의 의지는 행위이고 그의 행위는 그가 받게 될 결과이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인간은 그가 집착하는 욕망에 따라서 행동한다.”(5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 가장 압습한 인물은 아마도 야곱일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세속적이며 누구보다 열심히 그 세속적인 것을 추구한 인물이고, 세속적인 견지에서 집념으로 그 추구하는 바를 쟁취해 냈고 온갖 고난과 역경을 헤쳐낸 입지전적인 인물, ‘성공시대’에 나오면 좋을 인물이 바로 야곱이다. 그러나 한편 그렇게 교활한 수법을 동원한 속임수, 일생을 바친 사랑이 그에게 결국 허무로 남아있음을 보면(파라오가 야곱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묻자 “나그네살이한 헛수는 벌써 백삼십 년입니다. 제가 산 헛수는 짧고 불행하였을 뿐 아니라 제 조상들이 나그네살이한 헛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창세 47,9)라고 대답한다.) 과연 야곱의 생애가 성공적인 삶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 아닐까? 제3자에게 보여지는 성공적인 삶의 기준이 스스로 돌아보았을 때도 성공적인 삶이 되는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야곱은 배고픈 형의 상태를 이용해 장자권을 양도받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챈다. 하지만 그 장자권과 축복으로 인해 그는 고향을 떠나서 20년을 떠돌아야 했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살아생전에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실제 20년 후에 돌아와서 에사우와 재회했을 때 세속적 견지에서 보면 장자권과 축복을 다 놓친 에사우가 오히려 한 왕국의 왕으로서 모든 축복을 누리고 모든 것을 상속받아 오히려 실질적인 장자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야곱의 장자권과 축복은 현세의 것이 아니었기에. 그런데 만약 야곱이 자신이 가진 장자권과 축복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았다 해도 저런 선택과 행동을 했을까? 나는 야곱의 특성상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느님을 만나고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야곱이 자신과 관계없는 다른 이들의 미래의 축복을 위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나는 야곱의 이 비정상적인 - 성경에 드러난 세속적 집념의 사나이 야곱의 이미지로 보았을 때 - 열망과 집념은 야곱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부여해 주신 선택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이 책에 언급되어 있듯이 사람의 행위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은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는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이다.

실제 야곱이 비난받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놀랍도록 '나'의 모습과 닮았다. 언젠가 내가 고해성사를 드릴 때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다. “자매님이 미워하는 그분의 모습이 혹시 자매님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누군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비난받는 요소는 신앙인이지만 신앙을 살기보다 세속을 더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진솔하게 투영하고 있어서일 것이다. 야곱은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일곱 번이나 하지만 온전하게 하느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지 못한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순간 눈물을 흘리며 내게 오신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불쌍한 죄인을 돌보시는 한없는 은총을 느끼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도로 세속에 충실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좌절하게 된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공감했던 대목은 ‘그리스도인은 과정적 존재’라는 것

이었다. 세례를 통해 존재론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벅찬 것인지에 대해 이해가 없을 때 얼마나 많은 냉담자들이 양산되는가.

대개 가장 먼저 접하는 ‘사탄의 유혹’이 ‘내가 이려고 무슨 신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성당에 가면 뭐하나?’라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다. 나 역시도 이런 유혹에 시달릴 때가 있었다. 내가 이려고도 신자라고 할 수 있나? 미사 중에 너무도 큰 죄책감에 오히려 신자가 아니고 싶을 때가 있었다. 바로 그것이 너무나 매력적인 ‘사탄의 유혹’임을 안 것은 그런 갈등 끝에 성당에 간 어느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당 마당에 발을 들이는 순간 바로 주님의 은총임을 깨달았을 때였다. 내가 이렇게 나약해서 끊임없이 죄를 행함에도 변함없이 나를 성당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신가를 깨달으면서 ‘자격이 없어서 성당에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죄책감’이 얼마나 큰 교만인가를 동시에 깨닫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죄의 은총’을 믿게 되었다. 내가 이런 나약함들로 죄를 짓더라도 내가 그분을 떠나지 않고, 이 죄들을 미워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면 그분은 끝없는 은총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임을 알 때에 그분의 그 끝없는 은총과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새로운 신원에 맞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이도 저도 아니라고 해서 나를 내치는 하느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호칭이야말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며 고뇌하는 세속과 하느님께 양다리를 걸치고 저울질하는 나에게 더할 수 없는 위로의 칭호다. 야곱을 끝까지 보살피는 하느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통해 나의 구원은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 더불어 영적 변화와 성숙에 있어서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함을 알려준다. 부족한 내가 아니라 하느님의 충실함이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심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고 싶어 하는 존재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 세상에서 되기를 바라는 존재도 아니다. 또한 우리는 한때의 우리도 아니다. 우리는 바로 하느님의 은혜로 된 지금의 우리이다.”(210쪽)



조금 건방진 것도 은총입니다

박종기(스테파노)·졸업생 평가자

“그리스도의 몸!”, “아멘.”

1995년 12월 17일, 그날은 제가 스테파노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새로 태어난 날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인지도 모르고 처음으로 성체라는 것을 받아 모셨습니다. 열 달 동안 교리를 공부했지만 기억나는 것은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기억만 남아있습니다. 그 눈물이 부활의 기쁨이었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 것을 알게 된 것은 든든한 대부님 덕분입니다.

하느님의 섭리였을까요? 예비자 교리를 받을 때, 마침 배론 성지 순례를 앞두고 교리 시간에 대부님이 한국 교회사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열심히 듣고 배론으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때 배은하 신부님의 강론은 제게 뜨거운 불덩이를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 조상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가며 신앙을 증거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었을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은 단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성당을 찾았던 저에게 새로운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두 달 후 스테파노라는 새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고, 성지순례 때 느꼈던 감동을 잊지 못해 그날 대부님께 드린 약속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대부님,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부님의 환갑 때에는 교리 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시 대부님의 연세는 쉰넷이셨습니다. 대부님의 환갑이 육 년밖에 남지 않았고 시간이 너무 모자라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앞뒤 생각 없이 드린 약속이었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우선 무슨 공부라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매일미사」에서 통신성서 광고를 보았고, 3월 새봄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금 건방지게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조금 건방진 것도 은사가 아닐까요?

시간에 쫓기는 것 말고는 공부가 쉽다

고 생각했습니다. 교재를 열심히 읽고 베끼면 되었고, 되돌아오는 문제집의 점수 또한 매우 흡족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당에서는 레지오 마리에 모임과 다른 봉사 단체에도 가입해 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 좀 성숙해졌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럭저럭 육년이 지나갔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직장을 핑계로 연수회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지만, 2002년 새해를 맞으며 졸업연수회에 참석해 '성경교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2003년 이후로 폐지). 가슴이 벅차고 세상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대부님처럼 봉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물론 대부님께 자랑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사라면 남에게 무엇인가를 전해 주어야 하는데, 누구에게 전해줄 만큼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아는 체했던 것이 정말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지우려고 성경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구약입문 과정을 공부하는 분들의 평가를 돕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부터 통신으로 신학공부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다른 체험이 저를 다 그쳤습니다. 의정부교구가 서울대교구와 분리되고, 2003년도 봄에 제 본당인 운정성당이 탄현성당에서 막 갈라져 나왔을 때였습니다. 주임 신부님께서 부르시더니 어느 자매님과 함께 예비자 교리반을 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교리 봉사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당시 레나타 자매님은 서강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에(2006년 9월 작고) 그분을 믿고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레나타 자매님은 제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당신은 뒤에서 도와줄 터이니 혼자서 해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처음하는 교리는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강의 준비라고 하였지만, 막상 예비자들 앞에 서면 더듬거리고, 그때마다 머리가 하얗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모자라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신으로 공부하던 신학 공부를 멈추고, 2005년에 서울 교리신학원 전문과정 야간반에 입학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수업을 받고 집에 돌아가면 자정이었습니다. 집

이 멀다 보니(경기도 파주) 일찍 출근해야 하는 제게는 무척 힘들고 피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이해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럭저럭 또 2년을 보냈습니다. 신학원 졸업 후에도 여정, 예수회 성경대학, 공의회 문헌, 함께하는 여정 등 시간만 나면 이리저리 참 많이도 찾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 그분께 대한 이성적인 지식이나 상식이 온몸으로의 실천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이상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어렵풋이나마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시작한 것이 군 선교 봉사였습니다. 마침 2005년에 가온 군선교단이 창설되어 신학원 2학년이던 저는 망설임 없이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제가 더 공부하게 된 계기를 주신 레나타 자매님의 권유에 대한 보답이기도 했습니다. 군선교단은 주로 경기도 일원의 신병교육대에서 교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병교육 기간 동안 6주간 주일마다 교리를 받고 세례를 주니 정말 속성반입니다. 군대는

황금어장이라는 표현답게 세례를 받는 사병들이 많습니다. 부모를 떠나 생소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종교가 그들에게는 큰 위안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끔 사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청하여라.”(루카 10,2)라는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들이 모두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은 신병교육대가 아닌 기간 부대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더욱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 벌써 9년이 지났나 봅니다. 그동안 봉사를 계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성경공부였습니다. 군인 교리 기간이 짧다는 특성 때문에 저는 교리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자주 인용합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공부할 때 ‘되찾은 아들의 비유’(루카 15,11-32)로 대신하는 것이 그 한 예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리의 내용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려는 것이고, 성경만이 그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성경은 율법이 아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봉사를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것도 성경을 통한 깨달음 덕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병교육대와 달리 기간 부대는 예비자가 적습니다. 어떤 때는 한 달 이상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대는 정해진 시간에 방문해야 합니다. 언제 새 예비자가 등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애써 시간 맞추어 부대 공소에 가서 몇 주를 혼자 무료하게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공연히 왔다는 생각이 들고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예비자가 없어 묵상을 하며 짜증을 달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스테파노야, 이 모든 시간이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너는 내가 준 시간을 쓰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거저 받은 시간을 도로 내게 돌려준다고 생각하며 일한다면 왜 불평하느냐? 내가 준 시간의 일부를 나를 위해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예비자가 한 명이면 어떻고, 두 명이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냐? 네가 내게 다시 돌려준다고 봉헌한 시간은 이미 네 시간이 아니고 내 시간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듣자 봉사한답시고 겉으로만 생색내고 싶어 하는 자신이 부끄러

웠습니다. 결국 봉사를 빌미로 하느님이 아닌 나 자신을 내세우려는 욕심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거저 받았기에 기꺼이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다는 것을 잊고 너무 바쁘게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모두가 주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기에 내게 주신 시간의 십일조는 마땅히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돌이켜 보면 말씀과 함께하면서 달라진 것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된 것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시간을 내 멋대로 사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자, 그렇지 않아도 모자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도 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한동안 삶에서 바뀐 것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제 직장은 어떤 때는 국경일도 근무해야만 합니다. 주로 공장 등에 물건을 파는 가게입니다. 그런 핑계로 고질적인 술버릇은 아내와의 다툼으로 이어지고,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성실하지 못한 아버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통신성서 평가 봉사를 하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했습니

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군부대 봉사를 마칠 때까지는 내 시간이지만 집에 들어가 월요일 아침 출근할 때까지는 아내에게 그 시간을 모두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감하는 분들이 꽤 많으리라고 짐작합니다만 아내, 아니 여자와 쇼핑을 한다는 것은 무한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처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아내와 함께, 특히 백화점을 둘러볼 때는 더욱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예쁘게 꾸미기를 좋아하나 봅니다. 그러나 백화점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대의 옷들이 즐비합니다. 보통 우리 생각에 '0' 하나를 더 붙인 옷들이 많습니다. 아내 역시 그런 옷들에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우리 형편으로는 사 입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매장을 들여다보고 입어보기까지 합니다. 짜증이 나지만 그렇다고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사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사주지 못하는 것도 미안한데 그냥 입어만 본다는 것까지 말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행

동이었습니다. 사주지도 못하는 것을 왜 입어보며 스트레스를 받게 하느냐고 짜증내기가 일쑤였습니다. 물론 말다툼으로 이어지고 서로 며칠을 대화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참아주는 내게 미안해서인지 아내는 그때마다 입어보는 것으로 그치고, 마트나 시장에 들렀다가 조출한 된장찌개나 생선구이로 외출을 마무리합니다만 아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말은 안 합니다만 지금까지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남편이 자기를 위해 함께 시간을 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삶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하느님의 기준으로는 떳떳하고 싶은 것이 제 욕심입니다.

올해로 제 나이도 벌써 육십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오늘도 출근하면 「야곱의 우물」을 펴고 오늘의 복음을 필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면서 기억할 말씀 한 구절을 외웁니다. 요즘처럼 행복하고 평안한 날들이 지속되면 좋겠다는 욕심(?)을 부려봅니다. 그분은 언제나 당신이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당신의 도구로 쓰시는 분이시기에 말씀과 함께, 그렇게 주님 보

시기에 좋게 살다가 주님 곁에 가게 되길 고대합니다. “지나보니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었다.”라는 어느분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도 되새겨 봅니다.

“나는 하느님을 위하여 살려고, 율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갈라 2,19-20)

초여름의 하느님 사랑

김유진(크리스티나)·3학년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것만 같은 싱그러운 초여름 밤이다. 어느새 통신성서공부를 시작한 지 3년차, 그리고 제주에 내려와 산 지 3년차가 되었다.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아름다운 제주도에 살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던 출발도 분명히 있었는데,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

며 나의 단물이 서서히 빠져 나가고 있었다. 그나마 하느님의 자비로 성경공부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 온 덕분에 말씀의 힘으로 숨고르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다. 그리고 이번 제주 연수회의 주제는 ‘마태오복음 안에 나타난 참된 행복’, 너무나 기대되는 주제였다.

(그동안은 일 년에 한두 번 연수회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어야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수녀님들께서 제주로 내려오셔서 연수회를 진행해주셨다. 사실 연수회 핑계로 여행을 다녀와서 좋기도 했고, 다녀오면 주님께서 은총을 가득 내려주셔서 비행기를 타는 수고로움은 일도 아니었지만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예민한 나로서는 집에서 통학하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게 참 좋았다. 그리운 수녀님들을 제주에서 뵈 수 있다는 설렘으로 6월 말이 되기를 기다렸다.)

정신없이 한 주를 보내고 드디어 기다리던 주말이 되었다. 멀리서 와주신 수녀님들께 당근 케이크를 구워드리고 싶어서 일찍 일어났는데, 욕심내서 잔뜩 만들어 한꺼번에 오븐 위 아래 칸으로 굽다 보니 아래 위로 탄 것들이 있었다. 하는 수 없이 그나마 꼴을 갖춘 것들만 상자에 담아 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신제주성당으로 향했다. 성당 마당의 나

무 아래서 수녀님이 기다리셨다는 듯 기쁘게 맞아주셨다. 케이크 굽지 말고 그냥 일찍 와서 수녀님들 도와드리며 함께 시간 보낼 걸 하고 생각했다. 역시 작은 정성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수녀님들 덕분에 못생긴 내 머핀들이 나중에 연수생 간식으로 빛을 보게 됐다.

생각보다 연수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학생 수가 적은 만큼 단출한 분위기에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었다. 날씨도 덥지 않고 딱 좋았다. 보통 연수에 가면 내 또래보다는 어르신들이 성경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룹 나눔을 할 때 조금 송구스럽다. 그래도 돌아가면서 사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성경에서 함께해 주심을 느끼고 젊은이든 어른이든 하느님 앞에서는 다 어린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 올바른 자녀 교육법, 직장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등 모두 주님께 받은 은총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 사랑 안에서 애쓰며 살고 싶다는 감동적인 나눔이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나의 관심사 중 하나도 ‘행복한 여성의 삶’이듯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마침 직장에서의 바쁘고

고단했던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중 한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다.

“그대가 기쁠 때 그대 가슴 속을 깊이 들여다보라. 그대에게 슬픔을 주었던 그것이 오늘 그대에게 기쁨을 주고 있음을 알리라. 그대가 슬플 때 그대 가슴 속을 다시 들여다보라. 그대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그대가 울고 있음을 알리라.”

복이 되었던 것이 화가 되고, 화가 되었던 것이 다시 복이 된다는 동양 철학처럼 나의 3년도 그러했다. 바쁜 학교의 부교장단 비서로 일하는 동안 상사들은 나를 웃게도 하고 울게도 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근 십 년이 되었어도 어딜 가든 조직의 불합리와 부조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주님을 믿고 살아간대도 바쁜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온갖 책임들은 피할 수 없는 압박감의 유혹에 빠져들게 한다.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 내 편은 없는 것 같은 외로움... 그래도 제주도에 살고 있으니까 괜찮다고만 해버리기엔 힘이 들었던 게 사실이다.

마태오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나의 빈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

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특히 이 구절에 마음이 머문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도 나의 마음처럼 이렇게 허망함과 나약함을 모두 겪으셨기에 그 막막함은 다 아시고, 하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주신 것 같다. 물질적 가난이든 영적 가난이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찾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면 그 또한 큰 은총이 된다는 것을 배운다. 과연 내 앞에 어떤 어려움도 없었다면 나는 하느님을 찾았을까? 차고 넘치는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할 때에만 본연의 모습으로 충만히 살 수 있다. 나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먼저 문을 두드리 주신 주님께 감사드렸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상속’을 의미한다. 자녀인 우리들이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땅을 상속받는다라는 엄청난 의미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에서 ‘온유’란 모욕을 참아내는 것이라고 한다. 문득 직장에서 느꼈던 크고 작은 모멸감이 떠올랐다. 그런 상황에서 하느님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모두 흘러가 버리면 그만인데 작은 걸림돌 하나도

마주한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산이 되어 다가오기 마련이다. 그래도 소화 데레사의 작은 희생을 보아주신 것처럼 나의 희생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리라 기도하곤 했었는데 마태오복음 5장 5절을 통해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더욱 뚜렷해지는 기쁨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도에 담긴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예상치 못한 고통이나 슬픔 앞에서 늘 무너지곤 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나 자신에게 말해 주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품성을 조금씩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고통에 대응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높은 데서 사슴처럼』 6쪽)이라고 생각하면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긴다. 지난 성령강림대축일에 통달의 은사를 뽑았는데 하느님을 중심에 모시고 불필요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믿는 대로 살 수 있는 은총을 가득 내려주시길 기대해 본다.

이번 제주 연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여쁜 목소리로 전해 주신 민 엠마 수녀님과 뒤에서 고생하신 교육원 수녀님

들께 감사드리며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믿는다.

나를 복된 여자라 불러주오

손영순(안나)·1학년

복터위가 한창일 때 구약입문 연수회가 있었다. 나는 구약입문 문제집을 받아도 의무적으로 겨우 답만 찾아 적고 내용과 뜻은 이해하지 못했다. 특히 설화로 엮어진 구약은 지루한 내용들로 나와 거리가 먼 사건들이라 흥미가 없었다.

매사에 소극적인 내게 남편은 이틀 동안 집 걱정 말고 다녀오라며 연수회 전날 살레시오 회관까지 안내해 주었다. 회관에 들어서니 수녀님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하기 바쁘게도 환한 표정으로 반기며 올라 말까 망설였던 나의 마음을 꼭 잡아주었다.

연수회 첫날 조심스럽게 이름표를 보신 수녀님이 “오늘 안나 축일이네요. 축하해요.” 하며 반기셨다. 나는 세례받은 지 반세기가 되었지만 축일을 알고 지낸 기억이 없다. 내 축일에도 무관심하니 다른 형제자매들 축일에도 신경을 쓰

지 않았다. 간혹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의 축일에 공동으로 기도한 일은 있어도 내 마음에서 우러난 기도를 드린 기억이 없다. 그런데 축하 박수와 선물까지 받으니 나도 모르게 함박웃음으로 손을 흔들며 참석자들에게 답례를 했다. 이렇게 기쁜 것을 왜 나는 정을 나누는데 인색했을까?

강의실은 20대부터 70대 형제자매들로 가득했다. 20대의 예비 수녀님을 비롯해서 멀리 인도네시아에서도 두 분이 오셨으며 부산·전주·대전·춘천·수원·인천·서울교구 등 팔도에서 오신 분들로 강의실은 활기가 찼다. 집에서 연수회장까지 30분이면 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인데 귀찮게 여긴 것이 부끄러웠다. 수녀님들은 분위기 띄우는 데 선수인 듯 잠시도 잡생각 할 틈을 주지 않고 시간을 절약하며 정성을 다하셨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인 염철호 신부님의 강의를 시작되었다. 로만 칼라만 아니면 시원시원한 목소리에 이웃집 인심 좋은 아저씨 같은 친근감이 느껴졌다. 딱딱하고 지루한 구약 강의를 어떻게 버틸까 걱정했는데 유머로 구약이 나와 먼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내 이웃의 이야기처럼 쉽게 나를 이끌어 주셨다.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언어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 적은 것이니 언어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인간과 항상 함께하시지만 함께하시는 격식이 인간마다 다르다.”

하느님은 정말 나와 늘 함께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나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오실까? 궁금하다. 어떠한 격식으로 오시더라도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나는 아직도 머리로 저울질부터 하고 있었다.

그룹별로 모여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모두들 강의가 좋았다며 연수회에 온 것에 만족했다. 젊을수록 순수하고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보니 좀 더 일찍 성경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것이 후회되었다. 하지만 내게는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이니 용기를 내었다. 젊은이들보다 한가해진 노년을 하느님이 이끄는 데로 잘 보내야겠다.

집에 와서 영명 축일 선물로 받은 「나를 복된 여자라 불러주오」라는 룻기의 주해서를 읽어보았다. 과부가 된 룻이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시댁의 친척인

보아즈를 만나 아들을 낳아 남편의 대를 이어 시어머니를 기쁘게 했다. 연약한 룻이지만 진실된 삶을 살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아들 오벳을 낳아 예수님의 선조가 되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젊은 과부지만 하느님의 섭리대로 따른 룻은 결국 하느님의 복된 여자가 되었다.

힘든 것도 쉽게 풀어주시고, 사소한 일에도 정성을 다해 준비하신 신부님과 수녀님들 덕분에 이틀 동안이나마 나도 복된 사람이 된 듯 기분이 좋았다. 아마 다른 학생들도 복된 날이 되었으리라 믿는 것은 나의 욕심일까? 이틀 동안의 행복을 맛보고 나니 하느님이 이끄시는 영원한 행복의 길을 걷고 싶어졌다.

잠시 일상생활을 떠난 연수회 덕분에 복더위도 저만큼 물러간 듯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 주님을 향한 발걸음도 기쁜 마음으로 간다면 이렇게 가벼워질까?

말씀으로 하나 되는 통서가족

김순이(캐롤린) · 2013년 영성 수료

드디어 2014년 10월 18일 전국 통서가

족 모임의 날! 5시 30분 알람소리와 함께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는데 통서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루치아 님과 안나 님이 오셨습니다. 함께 준비해서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중서울 지역 가족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통서가족 모임 참석 전에 남양성모성지를 찾았습니다. 순례에 앞서 아름다운 단풍 아래에서 도시락을 먹고 파란 하늘의 맑은 기운으로 묵주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숲길을 따라 놓여진 커다란 묵주 한 알 한 알을 만지며 통서가족 모임을 위해 기도드리다 보니 어느새 묵주기도 5단이 끝이 났습니다. 이어서 성경을 묵상하며 걷는 십자가의 길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례를 마친 후, 자비의 예수님께 의탁하며 통서가족 모임 장소인 청려수련원에 도착하니 수녀님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어 도착하는 통서가족 한 분 한 분과의 만남은 가슴 설레는 초등학교 동창회 같았습니다. 주님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친구들이기에 이런 느낌이었나 봅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멋진 자리에 미국·제주·광주·전주·울산·마산·부산·사천·춘천·대전·금산·수원·평택·의정부·인천·서울에서 통서가족들이 오셔서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교육원 책임자 수녀님의 인사에 이어 첫 번째 프로그램은 사진말 나눔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자신을 소개하는데 무궁무진한 삶과 체험이 담겨있었습니다. 저는 오막살이집에 큰 별이 떨어지는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서울로 온 지 8년 만에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까지의 세월을 떠올리며, 지나간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느꼈습니다.

교구 회장단 모임을 하는 동안 골든벨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팀이 되는데, 저는 ‘이몽룡’을 뽑아 제 짝꿍인 ‘성춘향’과 팀이 되었어요. 성경과 상식, 통신성서교육원 역사 등의 문제를 풀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어요. 제 머릿속에 성경만 지우는 지우개가 있나 봐요. 8년을 공부한 기억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렇게 부족한 저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몇 번의 패자부활전이 있었지만 저희 팀은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웃으며 마냥 행복했답니다. 골든벨

을 올리신 공쥬·팔쥬님, 정말 대단하세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저녁 프로그램은 미니올림픽이었는데 그 개막을 맡구 총무님이 초대한 권선동성당 사물놀이패가 한껏 흥을 돋우어 주었습니다. 다리 운동을 위해 제기차기, 팔 운동을 위해 링 던지기와 팔씨름, 허리 운동은 홀라후프, 협동의 카드 뒤집기, 2인3각 과자 따먹기 등 경기를 치루는 열기가 여느 올림픽 못지않았습니다. 열기를 식히는 중간중간 장기자랑 코너가 있었습니다. 카페 운영진은 난쟁이 춤을 선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베로니카 자매님이 건강이 나쁘데도 몇 달에 걸쳐 만든 다양한 의상을 입고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으니 그 열정이 금메달감이지요. 대구 에스페랑스님의 오키리나 연주, 마르티노님·세베로님·마태오님의 하모니카 연주, 세레자요한님의 기타 연주, 최 야고보님의 노래까지 정말 훌륭했습니다. 모든 경기를 마친 후 남다른 실력을 가진 분들에게 금메달을, 참석한 모든 이에게 선물이 주어졌는데, 특별히 이 모임을 위해 1년 동안 준비한 에스페랑스님의 친환경 반짝이 수세미, 미국 베로니카 자매님의 장갑 모양 냄비집게를 받고 감동했습니다. 사용할 때마다 두 분을 위해 화

살기도를 드려야겠어요.

이미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헤어지기가 아쉬운 분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숙면하고 다음날 아침 거뜬하게 일어나 단풍이 물든 길을 산책했습니다.

아침식사 후 '요한 23세 교황님과 함께 드리는 영상 묵주기도'를 했습니다. 환희의 신비 현의와 연결되는 요한 23세 교황님의 일화를 영화(DVD '교황 요한 23세')로 보고, 한 가지씩 작업(침묵기도, 책나눔, 촛불기도, 편지쓰기 등)을 한 후 묵주기도를 바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신부가 꿈인 어린 론칼리를 주님께서는 당신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 교황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섭리에 응답하시는 교황님과 함께 드리는 묵주기도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파견미사를 집전해 주신 수원교구 이재웅 신부님께서 강론 때 들려주신 이야기가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예비신자 집에 벼락이 떨어져 큰불이 나 걱정하며 방문했는데, 오히려 감사 인사를 받았답니다. 이유인즉, 평상시 같으면 벼락이 떨어진 그 시간에 아내가 부엌에서 식사준비를 하는데, 그날은 거실에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어서 벼락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고 했답니다.

다. 감사하고 살면 감사할 일만 생긴다는 말씀을 깊이 새기며 감사드립니다!

함께였기에 기쁨으로 충만했던 시간은 내년 모임을 기약하게 했습니다. 모임을 준비해 주신 교육원 수녀님들, 동

문회 임원진들, 카페 운영진들, 참석하신 통서가족 모든 분들! 분들이 계셔서 많이 행복했습니다. 내년엔 한 분씩 더 모시고 와서 좋은 시간 꼭 함께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수(永壽) 그곳을 향하여

류휘웅(예로니모) · 송파동천주교회

매주 목요일 10시
송파성당 시니어대학

아름답고

자유롭고

새로움의 만남

수녀님 맑게 솟아오르는 소리

바람에 스미는 순백의 몸짓

빈 마음 채우는 즐거움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사랑의 가슴으로

미지의 그리움으로

웅숭 깊은 긴 울림

춘하추동 계절마다

생일맞이 잔치

꽃자리 펼쳐

날마다 새로운 축복 주시네

시니어 인생사

긴 여정

쌓여가는 퇴직층

얼굴에 비친 표상

가슴 젖어 내리는 심상

저마다의 색깔

화석의 역사

날로 어둠이 뭉치는 세상

살아온 인생의 에너지로

온 누리에 비추리라

이제

우리 아집 내려놓고

생각 달리 하면

옛된 동심으로 산다

멈추고 비우면

채움의 기쁨 영원하리

오늘 하루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면

희망에 찬 삶이 열린다

마음껏 즐기자!

임이자(체칠리아) · 송파동천주교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파동성당 시니어대학 수련반 임 체칠리아입니다. 처음 시니어대학에 입학했을 때 너무나 어리둥절했습니다. 학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설립 목적을 들으며 반신반의했어요. 앞으로 수녀님의 지도말씀과 율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자신이 없었어요. 움직일 때마다 모든 관절에서 소리가 나고, 율동할 때 엇박자로 나가서 나는 안 되겠구나 하며 포기하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어요. “내일은 목요일이니 꼭 나오세요!” 전화를 받고 나니 거절할 수 없어 나가다 보니 이제는 목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형제님들, 자매님들과도 낯이 익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정이 들었습니다. 서로를 소개하고 사진도 돌려보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던 자매님, 형제님이 안 보이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나? 가족 중에 누가 편찮으신가? 이제는 서로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체 율동도 재미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처럼 율동을 배우고 그림 색칠도 하고 성경 쓰기도 하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외톨이가 되어가는 기분이었는데 이렇게 모여서 웃고 떠드는 것이 너무 기쁘고 참 좋습니다.

지난 5월 양평으로 야유회를 갔을 때에는 모두들 마음이 들떠서 어린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점심 식사

후 색종이를 손으로 찢어서 고리 만들기, 성경말씀 맞추기, 카드놀이를 했는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협동심을 발휘하여 모두 열심히 하였고 결과에 승복하며 웃고 떠들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러 집으로 오자니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이팔청춘이라는 말이 정말 와 닿았습니다.

크레센시아 수녀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동을 가르쳐 주실 때에는 ‘엇박자라도 좋다. 마음껏 즐기자.’ 합니다. 이제는 관절 부딪치는 소리도 덜하고 숨도 덜 차고 정말 재미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건강도 챙기고 즐겁게 노년을 살아야겠습니다.

함께하는 즐거움

김경남(프란치스카) · 송파동천주교회

송파동성당 시니어대학 입학은 이러저러한 어릴 적 추억을 새롭게 떠올려 보는 즐거움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학창 시절 대학에 가고 싶었으나 가지 못한 아쉬움을 가슴에 묻고 지내던 저를 달래주는 잔잔한 설레임도 있었고, 개강식 때 갑작스럽게 학생 대표로 선서를 하게 되어 조금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수녀님께서 애써 준비해서 들려주시는 강의지만 잘 듣지 못하는 노년이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영상을 함께 보며 듣는 강의는 성경 속 현장을 직접 보고 그 당시 인물들을 직접 대하는 듯해서 많은 부분이 가슴에 오래 남아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강의해 주시는 수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각 반에 들어가 담임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은 새로운 교우들과 가까이 앉아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책가방, 교과서, 색연필 등을 받는 즐거움 또한 동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림에 색칠도 하고, 간단한 것이지만 여럿이 함께 만들어 보기도 하고, 노래를 개사해서 직접 불러보는 등 어린 학생들 같은 시간은 세월을 거슬러 아련한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고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주기도 합니다. 특히 담임선생님의 친절하고 자상한 모습에서 또 한번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함께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행복한지 느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골고루 챙겨가며 한 가지라도 다 같이 알고 함께 즐거워하도록 배려해 주시는 모습이 우리

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또 점심을 맛있게 차려주시는 분들에게도 항상 감사한 마음이며 아무런 대가 없이 수고해 주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이 모든 복되고 감격스럽고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려고 시니어대학을 설립해 주신 우리 본당 신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크게 발전해서 이웃 성당에서도 부러워하는 송파동 시니어대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총책을 맡아 이것저것 챙기느라 수고가 많으신 학장님,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내도록 해주시는 모든 봉사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어느덧 노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크신 사랑, 아름다운 선물임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이 딱 좋은 때

변승섭(아네스)·가평천주교회 성마리아 성경대학 봉사자

요즈음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대중가요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내 나이가 어때서’라며 외치고, 특히 노년의 어르신들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서인지 매우 열광하신다. 한평생 가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셨지만, 이제는 가족들에게서조차 소외되는 느낌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사시다가 ‘그래! 내 나이가 어때서’라며 정신이 번쩍 드시는가 보다.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의미 없는 삶에서 신나는 삶으로 전환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나 보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열광하시는 듯하다.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이 말은 나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빨리 자라서 독립하기를 바랐지만 막상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내가 일일이 챙겨주지 않아도 자신들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느낌보다는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을 펼쳐버리기가 쉽지 않다. 허전하고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것을 보면,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다짐했던 나의 마음은 거짓이고 자식을 나의 소유물이라 여기며 살아온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마음은 착각이기도 하고 욕심이기도 하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진정한 어른이 될 수도 있고, 그와는 반대로 외로운 웅고집쟁이로 늙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이 시기를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이제야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끼기도 하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한다. 이렇듯 중요한 시기에 새로 나는 성경공부 봉사를 하게 되었다. 나보다 연배가 높으신 어르신들과 성경공부를 함께하며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낀다. 겉모습이 모두 다르듯이 살아온 과정도 모두 다른 어르신들이지만 신기하게도 공통점이 있다. 긴 세월 동안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오신 분들이지만 눈빛은 어린아이의 눈빛을 닮았고 말씀하시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하다. 지나온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실 때는 수줍어하시며 진솔하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왁자지껄하게 떠들기도 하신다. 그러면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조용히 하라며 야단도 치신다. 손에 힘도 없고 눈도 어둡지만 투박한 손으로 정성스럽게 성경 필사도 열심히 해오신다. 평생 처음 책가방을 들어본다는 어르신도 계시고, 한글을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모두들 열심히 성경학교에 나오신다.

수업에 참여하는 시간이 흐를수록 어르신들의 수업에 대한 반응은 참으로 진지하다. 또한 모든 것을 내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보며 봉사자로서의 뿌듯함도 느낀다. 나에게 상처를 주어 용서가 안 되는 이웃이나 가족과 화해하려 노력하고 끊임없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고 말씀하신다. 이런 변화를 보며 나도 감사기도를 드린다. 용서의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용서하겠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순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은총이 아닐까.

어르신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방법을 공부하며 어르신들보다 먼저 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잘 살기 위한 다짐을 한다.

주님께서는 봉사를 통해 나를 이끄시고 키우신다. 그저 조금의 노력과 시간을 봉헌하니 주님께서는 내게 큰 선물을 주신다. 정말 작게 조금 드렸을 뿐인데 커다란 선물을 주신다. 하느님의 크고 영원한 사랑,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느님,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니 당신 외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느님,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세속적인 즐거움보다는 성경말씀을 배우기 위해 훌륭한 선택을 하신 어르신들을 보며 나도 살아가는 동안 세속적인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좋은 몫을 선택하리라 다짐한다.

나는 지금의 내 나이에 감사한다. 열심히 봉사하며 멋진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기다. 고집스럽고 편협한 노인이 아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노인으로 늙어가고 싶다. 또한 누군가 나를 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서 그 사람도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 또한 누군가의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나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 봉사하기에 딱 좋은 지금 이 나이에 감사한다. 내 나이가 어때서!





액자에 담긴 풍경

손영순(안나) · 1학년*

형제들이 모였다. 적적하신 시어머님은 아들, 며느리, 손자들이 모이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으셨다. 그때마다 만머느리인 나와 두 동서들은 음식을 장만하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입까지 수군대기 바빴다. 같은 핏줄의 형제들과 사는 동서들이니 감출 것도 허세도 없이 초록은 동색이란 옛말을 실감하며 재미있어 했다.

형제라도 서열에 따라 생각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세 동서들은 서로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으로 위로를 받았다. 술을 많이 먹는다, 무관심하다, 신경질을 부린다 등 한창 남편들의 흥이 늘어질 때 시어머님이 들으시고 왜 하늘같은 남편 흥보느냐며 한 말씀하셨다. 잠시 며느리들의 수다는 쑥 들어가 버리지만 당신 아들만 최고인가 하는 마뜩찮은 눈빛을 주고받았다.

세월이 흘렀다. 나와 동서들 모두 시어머니가 되었다. 모시던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아랫사람을 거느리는 위치가 된 것이다. 시어미의 자리에 들고 보니 남편에게 쏟았던 불평들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나이가 들면서 할 말과 행동을 가리게 되고 함께 살아온 세월이 쌓이면서 나도 모르게 남편을 닮아갔다.

남편과 나는 외모부터 대조적이며 성격도 다르다. 물만 마셔도 체중이 오를까 걱정인 남편과 체중계 눈금이 한 점이라도 오르기를 기대하는 나와는 식성이 완전히



* 월간 수필문학으로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양수필문우회 부회장. 수필집 「달 그림자」,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

달랐다. 그러니 남편의 기호에 맞추면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내 입맛대로 하면 남편이 수저만 왔다 갔다 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조금씩 서로의 선호하는 음식 맛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길들여진 기호식품들은 변하기 어렵지만 몇 십 년 동안 한솥밥을 먹게 되니 식성이 조금씩 닮아갔다. 남편은 나처럼 과일을 좋아하고 신 김치의 맛을 알게 되며 야채를 즐겨 먹게 되고, 나도 싫어하던 돼지고기 삼겹살을 안주 삼아 못 먹던 소주 두어 잔을 남편과 마주하게 되었다.

부부가 비슷한 식성으로 맞추는 일도 수십 년이 걸리는데 한평생 무리 없이 산다는 것이 어디 쉬울까? 결국 잘났다고 목소리 높여도 가재는 게 편이듯 나와 남편은 한 편이 되어갔다.

어쩌다 며느리 둘이서 저들 남편 흉을 보며 수군거렸다. 나도 모르게 “귀한 내 아들 흥보지 말거라.”며 어머님과 똑같은 말을 하였다. 나도 젊었을 때는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는 어머님 말씀에 여자가 항상 손해 보는 느낌이 들었으니 며느리도 내 말이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하늘에서 비바람과 천둥이 치지만 밝은 햇볕도 나듯이 부부가 함께하면서 음식과 양지로 오가며 미운 정 고운 정 쌓이는 것을 좀 더 일찍 깨달을 수는 없을까?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듯 헛된 수고는 하지 말고 서로 있는 그대로 보듬어야 되는 것을 반평생의 세월이 흐른 뒤에 깨닫게 되었으니 눈 감는 날까지 배워야 할 일들이 이뿐일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다는 부부와 다른 사람을 만나겠다는 통계를 내어보면 거의 반반이라고 한다. 서로 당신 아니면 못 살 듯 만난 남녀가 온 몸을 다 바치겠다고 만인 앞에서 약속했지만 몇 년 살다가 보면 꿈과 현실의 갈등 속에 헤매는 경우가 많다.

나는 과연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할까? 내 마음도 반반으로 나누어진 다. 남편과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울고 웃으며 보낸 세월을 뒤돌아보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과연 다른 사람을 만나도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 지금보다 행복하게 살 확률도 반반이 아닐까? 행복 찾아 날아간 파랑새가 다시 살던 둥지를 찾듯이 나도 정들었던 남편을 찾을 것 같다.

내가 후생에 남편을 다시 찾아도 남편은 나와 함께한 세월이 지겹다고 나를 피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편 역시 순한 토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날지도 모르니 결국 절반의 고민을 할 것 같다. 어쩌면 다시 만나게 될 때는 요부로 변한 나를 보고 남편은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을지 모르겠다.

옷에 묻은 티끌을 털어주면 입이 되고 티끌이 쌓이면 남이 되는 것이 부부 사이인 것 같다. 다섯 쌍 중에 한 쌍은 헤어지는 요즈음, 행복 찾아 다른 배필을 만나도 서로 맞추어 가며 공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부부가 함께하면서 생각이 다르다고 불평하고 똑같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것 같다. 다른 모습들이 만나 서로 어울려야 사회가 발전하지 않을까? 그러니 남편을 만난 것이 나의 뜻과 다른 필연도 있을 것이다. 대신에 신은 누구를 만나든 행복과 불행의 길로 가는 두 개의 열쇠를 내게 준 것이 아닐까?

행복한 부부가 사는 방법 49가지

크리스타 슈필링-뇌커 지음 | 유향자 옮김



은혼식을 맞은 부부에게 축하를 건네며 어떻게 25년 동안 함께 행복할 수 있었는지 물었다.

“그 비밀을 알려드리지요.”

두 사람은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탄식하는 대신, 그 사람의 행복과 평안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그 사람이 잃은 것은 무엇인지 계산하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을 줄 방법을 생각한다면 사랑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고, 무한한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66쪽)

II 나눔터 모음

「학생수첩」에 있는 성경 통독 계획표대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시편 기도와 함께하는 시간은 저의 삶을 영적인 풍요 속으로 이끌어 줍니다. (1학년 이강엽 제노비아)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께서 밤늦게까지 통신성서 공부를 하시던 것이 기억납니다. 만년필을 들고 멋진 필체로 답안을 작성하시던 어머니 덕에 저 또한 그때의 어머니와 비슷한 나이가 되어 같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학년 신세인 알마)

창세기를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책으로 여겨오다가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생각하며 읽으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읽을수록 존경과 함께 닮고자 하는 열망이 솟아오릅니다. (1학년 송수진 희순루치아)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의 제 입장이 무척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쓴 답이 맞았건 틀렸건 또는 점수가 잘 나왔든 못 나왔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5년 이상 냉담했던 제가 70세에 하느님에 대해 알아가며 공부하는 것이 하느님의 크나큰 은총이라 생각합니다. (1학년 송화준 십자가의 요한)

1과 문제집을 받고 즐거움과 기쁨이 매우 컸습니다. 내가 무언가 해냈다는 즐거움, 성경을 공부하는 기쁨,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쁨입니다. 평가자님의 글을 읽으면서 낯선 느낌이 아닌 오래된 친숙함이 느껴져서 기쁨이 배가되었습니다. 1과 공부를 하면서 이해하지 못한 질문에 꼼꼼히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학년 강현애 안젤라)

지난번 문제집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배곡하게 보충설명까지 해주신 것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정성과 사랑을 다해 채점해 주신 그 마음이 느껴졌고,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에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은 저 자신을 반성해 보았습니다. (1학년 윤명선 마리스텔라)

구약성경 분량이 많아서 성경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읽으면서 동감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주님의 명령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이 정도 쯤이야!’ 하며 거역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럼에도 뉘우치거나 자비를 구하면 언제나 자애를 베풀어 주셨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학년 장민정 엘리사벳)

매달 과제물을 제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미루다가 날씨가 추박해서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 읽다가 덮곤 했는데, 힘든 순간에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 저를 위로해 주신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친구에게 불평하고 하소연하곤 했는데 이전 주님이 항상 곁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분께 의지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1학년 김향수 로사리아)

공부 도중 메모지에 ‘사무엘기, 열왕기 읽기’ 하고 써놓았어요. 숙제하다 보니 어느덧 열왕기는 다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이름은 연대표만 보고 적기에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엘리야, 엘리사 예언자의 활약은 무협지(?) 비슷하게 즐겁게 읽었어요. 엘리야 예언자가 호렙 산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부분(1열왕 19,11-12)은 마치 보는 듯하고, 읽으면 시처럼 음률이 느껴져요. (1학년 윤선경 수산나)

성당에서 독서할 때는 몰랐던 역사 배경과 의미들을 알고 나니 성경 읽는 것이 훨씬 재미있고 내용이 다가옵니다. (1학년 이복희 마리스텔라)

「성경의 세계와 지도」를 가지고 바오로 사도의 선교 여행 경로를 따라가며 생생한 체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부에만 머물지 않고 바오로 사도의 열정과 희망, 믿음을 배우고, 그와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2학년 정병화 대건안드레아)

새로 등록할 때마다 망설이던 제가 어느덧 구역중급을 시작하고 첫 과제를 보내는 것이 대견스럽네요. 대전 통서가족 선배님들과 동기들의 응원, 가르침의 힘이 컸던 것 같아요. 통서모임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변화된 모습이 말씀을 공부한 결과임을 확신합니다. (3학년 김경희 베네딕타)

바오로 영성을 꼭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입문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여정 안에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만났고, 예수님과 제자들 옆에서 졸졸 따라다녔던 기억에 새삼 나를 키워주신 하느님 음성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여러 평가자님의 도움으로 자신 없는 답안들이 완성되었고, 답안을 적으며 교재에 담긴 많은 학자들의 언어가 저의 언어로 다시 꾸며졌습니다. 처음의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바오로영성 1학년 정소애 켈마)

8년이라는 과정이 부담스러워 몇 년을 망설이다 작년에야 시작한 것이 후회가 될 정도로 통신성서 공부는 큰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1학년 때 송용민 신부님 특강도 아주 좋았는데, 이번 ‘하느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특강도 아주 유익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강사 신부님과 튜터 수녀님을 위해 감사의 화살기도 씁니다. (이러닝학습 2학년 유형덕 사비나)

매주 월요일, 일을 시작하는 주간의 시작이 이렇게 벅차고 설레기는 처음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그 주간 강의를 매일 되풀이해서 듣고, 전 주간 강의를 복습하면서 말씀에 취하고 또 취합니다. 이중섭 신부님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잊지 않고 기다려 주신 주님께 찬미드립니다. (이러닝학습 3학년 이명희 엠마)

입문과정을 끝내고 ‘끊임없는 성경공부가 앞으로의 삶에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에 잠시 쉬었는데 다시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문과정이 하드웨어라면 중급과정은 소프트웨어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 신부님의 훌륭한 강의로 많이 배울 것 같네요. (이러닝학습 3학년 손병순 레지나)



+ 찬미예수님

어느새 무더운 여름과 함께 한 학기의 공부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공부를 하기까지 결정과 선택의 시간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으셨겠지만 그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여름방학을 맞이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신다는 그 믿음과 사랑 하나만으로 구약성경 공부를 끝내고 새롭게 신약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웃들에게 퍼져 나가는지 배웠던 한 학기였습니다. 특히 사도 바오로의 열정은 우리 삶에 커다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또한 바오로 사도의 열정과 선교 여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신앙생활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그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늘 설레게 합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행복의 순간인 동시에 두려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를 온전히 드러내 보여야 하는 동시에 나의 한계를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그러합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새롭게 알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런 하느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두려움, 하지만 그것이 공포와 무서움에 떠는 두려움이 아닌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는 두렵고 떨린 마음일 것입니다.

올해 전반기에는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세월호 사건과 밀양 송전탑 사건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고 오랜 시간 분노하였고 지금까지 한쪽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하느님께 묻습니다. 아니 따지듯 외칩니다. 그 수많은 학생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자기 탓 없이 그렇게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냐고? 하지만 그에 대한 하느님의 대답은 들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들은 한 학기 성경공부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를 통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통한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현재까지도 유효한 사랑이며 영원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제자들이, 신자들이 수많은 고통과 박해의 역사 안에서도 곳곳하게 신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은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쩌면 어떤 해결책도, 속 시원한 대답도 들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공유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안다는 것입니다. 곧 성경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앞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며 하느님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두렵고도 설레는 마음입니다. 또한 새로운 삶으로의 건너감을 뜻합니다.

한 학기의 공부가 공부로 멈추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셨다면 그 사랑이 부족한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보는 방학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학기에 더욱 기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해 봅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가정 안에서 행복하고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8월 한국교회에 축제의 시간이 열립니다. 124위 시복식과 아시아 청년대회를 위한 교황님의 방한. 한국교회가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주가톨릭대학교에서 최현철(안드레아) 신학생 드림

용서와 화해를 위한

십자가의 길



글 : 바오로딸
그림 : 김용민(요셉)
광주가톨릭대학교

▶ 십자가의 길 기도 안내

1. 시작 기도로 다음 기도문을 바칩니다.

이기심으로 갈라지고 분열된 가정, 폭력과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 하나 되는 은총을 청합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위로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각 처로 넘어가기 전에 다음 기도를 바칩니다.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3. 각 처에 깊은 절을 하며 다음의 기도를 바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4. 잠시 그림을 보며 머무른 다음, 묵상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5.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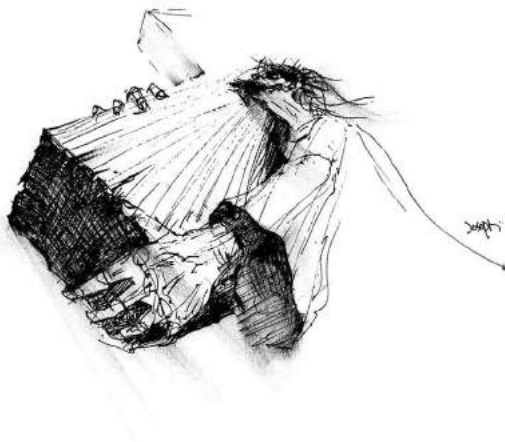
제1차 예수, 사형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빌라도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에게
불의한 사형선고를 내렸듯이
저희는 너무 쉽게 선입견과 편견으로
이웃을 비난하고 죄인 취급합니다.

주님,
잘못된 판단으로 부당하게 고통 당하는
이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이 땅에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게 해주소서.

제2차 예수,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인류의 죄가 무거운 십자가로
예수님에게 주어졌듯이
가족과 학교, 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가
어깨를 짓누릅니다.

주님,
삶의 무게가 힘겨워 다 벗어버리고
도망치고 싶을 때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당신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갈 힘을 주소서.

제3차 예수, 첫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악의와 배신으로 둘러싸인 예수님은
걸어갈 힘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가까운 이가 무심코 건넌 말과 행동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신과 미움이 가득 찬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주소서.

제4차 예수, 성모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성모님이 힘겹게 일어난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받아 안으셨듯이 자녀들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우는 부모들을 만납니다.

주님,
자식들의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들의 마음을 가엾게 여기시어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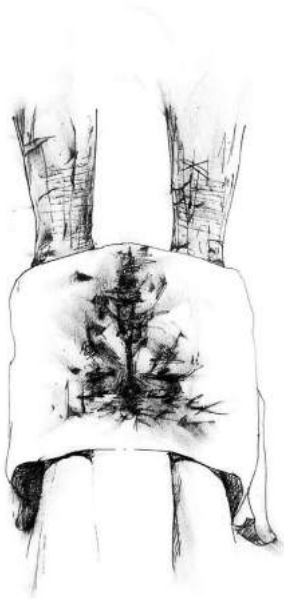
제5차 시몬이 예수를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내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상대에게는
이해를 강요하는 일임을 모르고
그저 내 아픔을 몰라준다 싶어
섭섭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돕기 위해 나선 시몬처럼
처지를 바꿔 생각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너그러움을 갖게 해주소서.

제6차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의 얼굴을 씻어드림을 묵상합니다



베로니카는 피와 땀으로 얼룩진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 드리기 위해
무릎을 꿇습니다.
모두가 피하고 손가락질하는 죄인들 편에
서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형제에게 선을
행하지 못했던 비겁함을 용서하시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제7차 예수,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더는 버틸 힘이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게에 눌러 쓰러지셨듯이
한 번 어긋난 관계는
늘 같은 문제에 걸려 부딪칩니다.

주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을 믿으며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다시 손을 내밀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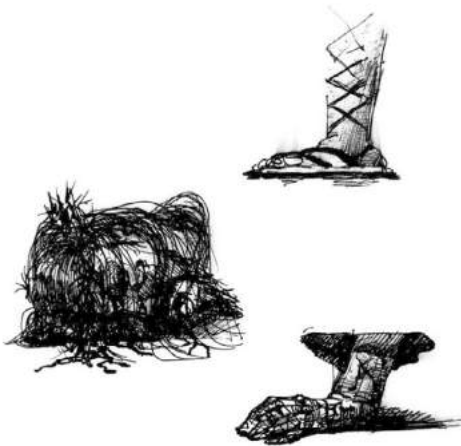
제8차 예수,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매번 잔소리하며 간섭하는 사람을 만나면
부딪치는 것이 싫어 말을 귓등으로
흘려버리려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주님,
그가 나의 모자란 부분을 보여주고 채워주는
하느님의 선물이며,
하느님의 일을 완성하도록 보내주신
협력자임을 깨닫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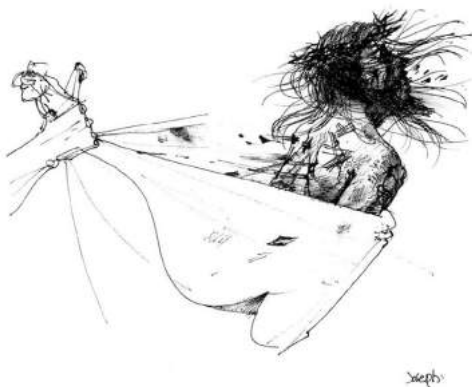
제9처 예수,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처참하게 넘어진 예수님이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셨듯이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순간, 다시 시작하도록
이끄시는 당신을 느낍니다.

주님,
저희가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며
다투고 갈라설 때
아버지께 순종하며 온유하게 살아가셨던
당신의 겸손을 기억하게 하소서.

제10처 예수,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이 옷이 벗겨지는 수치와
신 포도주를 맛보셨듯이
물질 만능 사회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마저
지킬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돈 앞에서는 가족도 친구도
믿지 않는 세상에서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당신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알려주소서.

제11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보속하며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하듯이
권력과 폭력 앞에서 침묵과 기도로
응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진실을 덮어버리고 불통과 권위로
벽을 만드는 세상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소명을
충실히 살아가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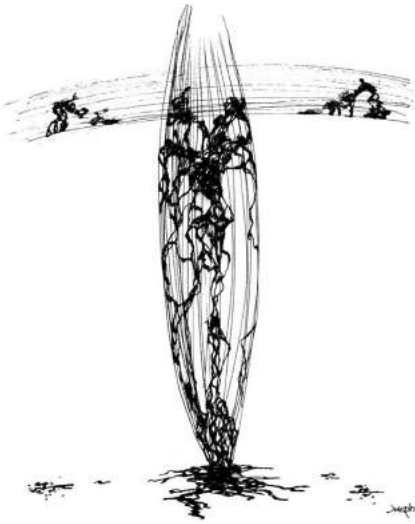
제12처 예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듯이 결국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고 양보하는 것임을 배웁니다.

주님,
안 보면 그만이다 생각하며 애써 외면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스런 기억 때문에
힘이 듭니다.
저희가 용서와 화해를 통해
평화의 길을 찾게 해주소서.

제13처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지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끝내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 평안히 눈을 감으시듯이
용서를 통해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됩니다.

주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뒤틀린 관계를 회복하도록 화해의 시간을
허락해 주소서.

제14처 예수,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이 묻히신 후
주위는 고요에 잠기고
이제 모든 것은
하느님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죽음으로

용서와 화해를 얻어주시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살아가게 해주소서.



25회 중급 졸업생들은 말한다

가장 힘들 때 통신성서를 통하여 당신과 함께한 6년은 고통, 슬픔, 축복, 기쁨, 사랑, 용서를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치고 인내심이 바닥일 때마다 당신의 힘과 사랑으로 결국 인내의 단맛을 보게 해주신 당신께 저의 졸업을 바칩니다.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주님께 감사를, 모두에게 박수를! 6년은 만남이었습니다. 주님과와 만남이었습니다. 만남을 통해 내 영혼의 눈금이 조금이라도 올라갔다면 그건 은총입니다. 아픈 몸으로 기도드린 한 마디 "주님, 6년을 허락해 주세요." 다시 욕심을 부립니다. "주님, 당신의 도구로 써주세요."

86학번. 28년 만의 졸업. 아침미사 때 잠시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다. 참 긴 세월 내 생의 황금기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이룬 것은 무엇인지? 나는 통신성서 공부를 마쳤다.

지난 6년 동안 어렵고 힘든 계단을 올라 정상에 오른 기분. 광활한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세례 후 하느님에 대한 갈증을 말씀의 두레박으로 풀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말씀의 샘물이 샘솟는다.

아! 6년 너무 길어. 막막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이라니. 비틀거리는 나를 보듬어 주며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샬롬! 어느새 졸업이네요. 쉼스럽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하지만 나는 압니다. 6년 내내 그분이 함께 계신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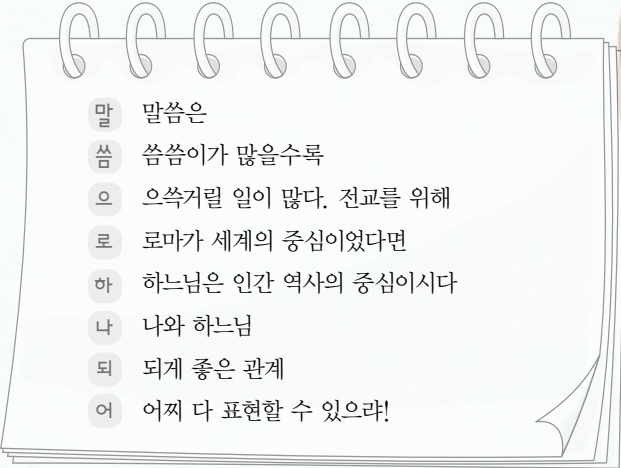
통신성서 6년 과정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고 다시 한 번 나를 정립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찾아가리라, 주님의 그 길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하겠지만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쉼표이다. 줄 바뀔다 시 시작할 성바오로 신학영성과 함께 나의 통서가족의 삶은 영원하리라.

8년 만에 공부를 마치며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벅차다.

6년 동안 하느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항상 말씀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드디어 졸업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말씀밖엔 어떤 위로도 느끼지 못하던 시기에 하느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한 해 한 해 공부하면서 하느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이룰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사랑합니다. 바오로딸 통신성서 파이팅!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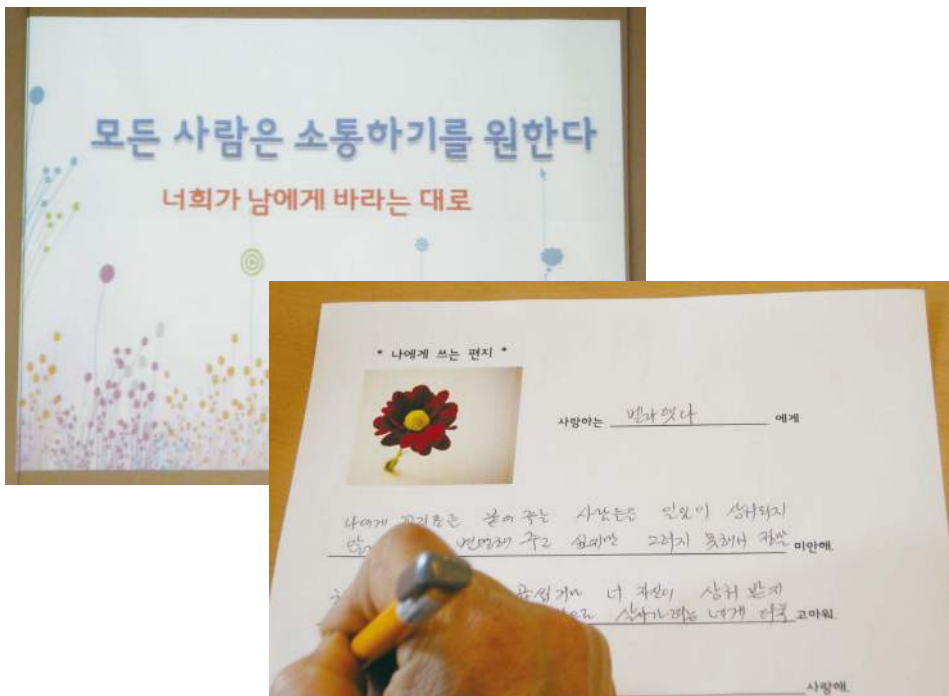
말 말씀은
씀 씹씹이가 많을수록
으 으쓱거릴 일이 많다. 전교를 위해
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다면
하 하느님은 인간 역사의 중심이시다
나 나와 하느님
되 되게 좋은 관계
어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으랴!



○ 졸업생 평가봉사자 모임

3월 22일 토요일, 졸업생 평가봉사자 모임이 알베리오네 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오신 40여 명의 졸업생 평가봉사자들이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핀 진달래처럼 화사한 미소와 더불어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소통의 빗장을 여는 열쇠'라는 주제로 성바오로팔수도회 김정희(세라피나) 수녀님의 강의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니메이션 <마녀의 성>을 시청한 후, 타인의 마음을 닫게 하거나 열게 하는 태도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준 '꼬리표'는 무엇이며, 꼬리표를 듣게 될 때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누면서 공감하며 듣는 연습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마태 7,12)라는 말씀대로 상대방에게 먼저 사랑·존중·인정·관심·배려·칭찬을 해줌으로써 자신도 되받게 되고,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소통의 장이 열림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신학교 평가자 모임

3월 20일 남도의 개나리와 벚꽃이 화사한 광주 신학교를 시작으로 3월 27일 대구, 28일 부산, 31일 서울, 4월 4일 인천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등록 후 처음으로 보내온 학생들의 1과 문제집, 교육원에서 마련한 간식 선물을 받아 든 학사님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로 평가방법에 대한 안내를 경청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평가를 계속하시는 학사님들은 통신성서 평가를 통해 만나는 분들과의 교류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연세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고 자신을 반성하는 기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소자들의 나눔에서 감동과 자극을 받고, 교정 사목 실습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올해 새로이 평가를 하시는 신학생들에게는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미리 이메일을 통해 공지하였고,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숙지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과 통신성서를 평가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평가의 동기는 ‘수녀님들과의 친분으로’, ‘지혜문학 공부와 구약성경으로 학부 논문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들과의 소통과 체험 공유가 좋아서’, ‘어머니께서 통신성서를 공부하시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떠올라 나 자신도 평가하며 나누고 싶어서’, ‘학생들의 생각과 열정, 마음을 알고 싶어서’, ‘앞으로의 사목에 바탕이 될 것 같아서’ 등 다양했습니다.

학과 공부하기에도 벅찬 빠듯한 학사일정 안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점과 서로의 공감대를 나누는 풍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평가자 중 몇 명은 아이패드로 평가안내 파워포인트를 확인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3년째 평가를 하고 있는 부제님은 나눔터 작성을 어려워하는 후배들에게 자신만의 평가 비결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학생들과 친밀한 교류를 나누는 부제님·학사님들의 모습을 통해 ‘평가자’의 역할이 ‘멘토, 동반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마치고 떠나는 수녀들을 주차장까지 와서 배웅하는 부제님·학사님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렸습니다.

○ 새로 나는 성경공부 봉사자 이스라엘 성지순례

2월 16일부터 12박 13일 일정으로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춘천교구 봉사자



23명과 광주대교구 정경륜 신부님, 윤 일마 수녀님이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새로 나는 성경공부’ 주최로 처음 실시한 성지순례를 위해 6개월 전부터 「최고의 성지 안내자 신약성경」을 매주 한 주제씩 공부하며 관련된 성경말씀을 필사하고, ‘묵주의 고리기도’로 서로를 기억하면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모두들 하느님의 얼굴을 뵈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고 출발한 이번 여정 동안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희망과 기쁨, 사랑과 따뜻함, 용기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 가평천주교회 성마리아 성경대학 장수사진 촬영

춘천교구 가평천주교회 ‘성마리아 성경대학’에서는 「마태오와 함께 쓰는 나의 복음서」 22과를 공부하며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어떤 예복을 준비할까 미리 생각하면서,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날 서울사이버대학 사진 동아리에서 일곱 분이 오셔서 재능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이들의 자원봉사로 아름다운 ‘장수사진’(요즘은 ‘영정사진’이라 하지 않는답니다)을 무료로 촬영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성경대학 학생뿐 아니라 성당 주변 60여 분의 어르신들도 초대해 훈훈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2014년 장학생 현황

올 한해도 연수회 파견미사 봉헌금과 전국 바오로딸에서 모금한 성금으로 전국 21개 교도소에 계신 형제자매님이 하느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약입문을 공부하는 형제님께서 2학기 공부를 시작하면서 “보내주시는 문제집을 보며 행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다시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나눔터에 쓰셨어요. 재소자 형제자매님들이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생활하면서도 말씀 공부를 통해 삶의 궁극적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성바오로 신학영성	계
인원	13	11	4	11	4	4	6	53

○ 연수회 소식

	과정	날짜	강사	주제
1월	구약 입문 2학기	1.18-19	허규 신부님	예언서
	신약 입문 2학기	1.11-12	김정훈 신부님	4복음서
2월	성바오로 신학영성 수료	2.15	박기석 신부님	사목자 바오로
	신구약 중급 졸업	3.1-2	김정완 신부님	성경의 수용 과정과 각 성경책의 공동체
5월	구약 중급	5.24-25	이중섭 신부님	지혜문학
6월	제주 연수회	6.28-29	민남현 수녀님	마태오복음 안에 나타난 참된 행복
7월	구약 입문 1학기	7.26-27	염철호 신부님	모세오경
	신약 입문 1학기	7.5-6	김효준 신부님	바오로 서간
8월	신약 중급	8.2-3	박병규 신부님	요한묵시록
9월	성바오로 신학영성	9.27	이정훈 신부님	바오로 사도에 대한 이해

2014년 한 해 동안 총 10회 연수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14학번 구약 입문 학생들부터 성바오로 신학영성 과정 학생들, 졸업생 평가봉사자, 졸업 후 다시 찾아온 선배님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과 함께한 시간들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배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족집게 강의, 꿀 같은 강의’를 해주신 모든 강사 신부님들,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수회 강의를 처음으로 해주신 허규 신부님(서울가톨릭대학교), 김효준 신부님(의정부교구 신앙교육원), 이정훈 신부님(서울대교구 청년성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수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에서 새벽 3시에 출발하신 자매님들, 전날 오셔서 근처 여관에서 주무신 형제님. 철도 파업으로 여러 번 기차를 바꿨다 타느라 점심 때 도착하신 자매님, 금요일 오후에 남편과 함께 답사를 하신 자매님, 연수회 당일 교육원 수녀들보다 먼저 살레시오회에 도착해 수녀들을 반겨주신 형제님. 뉴질랜드·인도네시아·캐나다·중국·일본에서 오신 자매님과 전국 각지에서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달려오신 형제자매님들과 수녀님들이 ‘말씀 안에 하나 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뉴질랜드에서 열일곱 분이 스터디 형식으로 구약입문 과정을 시작하였고, 그 중 두 분이 연수회에 참석해 주셔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올해 성바오로 신학영성 수료 연수회에는 1985년에 입학하신 박영숙(마르타) 자매님이 대표로 수료증을 받으셨습니다. 마르타 자매님은 2010년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영성 과정을 공부하면서 매일 살아있다는 고마움을 봉헌하셨다고 합니다.

제25회 졸업연수회에서 최연장자께 드리는 알베리오네 상은 82세 천병기(바오로) 형제님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신 분께 드리는 진리상은 박숙(막달레나) 자매님께 드렸습니다. 막달레나 자매님은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신체적 장애가 있음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은 물론 주위에 사랑과 웃음을 나누며 기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마감일 내에 문제집을 제출하신 분께 드리는 말씀상 수상자는 작년(5명)보다 대폭 증가한 열다섯 분께 드리면서 올해 졸업생들의 성실함에 경탄했습니다.

2012년 이후 다시 마련한 제주교구 연수회에는 제주교구뿐 아니라 광주·부산·수원·원주교구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주교구 학생들 중 몇 분은 서울 연수회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편이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2002년에 구약입문을 시작하신 김군보(아우구스티노) 형제님은 참석자 중 최고령자(82세)로 졸업을 앞두고 계십니다. 통신성서 졸업을 생애 마지막 목표로 삼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수회에서는 강의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오신 형제자매님들, 수도회 양성자들, 수녀님들이 진솔하게 나누는 이야기에서 큰 감동을 체험합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나누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 짧은 시간 안에 멋진 공연을 준비하며 돈독한 친교를 나누는 모습에 매번 감탄하게 됩니다.

연수회 중 생긴 일화를 모두 전해드리고 싶지만 그 중 두 가지만 전해드립니다. 통학으로 신청하신 자매님 중 한 분은 새벽잠을 설치고 일어나 본당 새벽미사에 봉사하셨는데, 피곤함에 잠시 설까 하는 유혹이 있었지만 신부님의 유쾌하고 명쾌한 강의를 놓칠 수 없어 힘을 내어 오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연수회 첫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는데, 그만 성경과 교재, 구입한 책과 CD가 든 가방을 놓고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같이 웃고 울던 성경을 꼭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밤 11시쯤 택시 기사님이 가방을 갖고 오셔서 무척 기뻐하며 감사드린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러닝학습을 하시면서 연수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컴퓨터 화면이 아닌 라이브로 진행되는 강의와 함께 공부하는 동기생들과의 나눔이 무엇보다 소중한다고들 하시네요.

구약입문 첫 연수회 참석자들 중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친구, 동료로부터 통신성서를 소개받아 공부하게 되었다고 하니 2015년 신입생 모집을 위해 ‘입소문’을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수회 갤러리 및 소감



구약입문 2학기 연수회



신약입문 2학기 연수회



🌿 중급 졸업 연수회



🌿 성바오로 신학영성 수료 연수회





구약중급 연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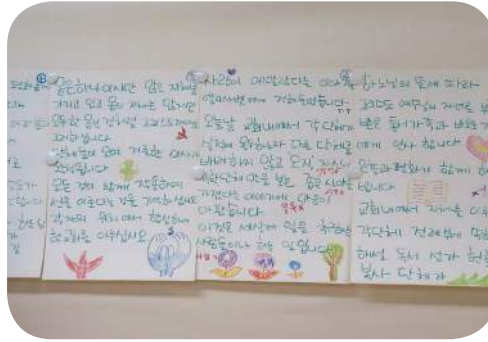


제주 연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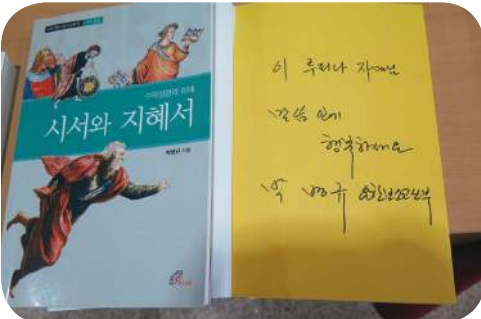




🌱 신약입문 1학기 연수회



🌱 신약중급 연수회





연수회 참석 소감

♥ 성경을 읽을수록 '왜?'라는 물음이 자꾸 생기는데 신부님께서 친절하게 강의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동안 책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정리하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야를 넓혀주어 앞으로의 신앙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 성경공부의 오아시스 같은 연수회에 참석하게 되어 기쁩니다. 형제자매님들의 나눔을 듣고 한마음으로 그룹 발표를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 리포트 쓰기 어려워 참석했는데 ‘무한감동 × 30’이네요.

♥ 일상에서 탈출해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휴가 온 느낌, 내가 대접받는 느낌에 감사드립니다.

♥ 복잡한 생활 속에서 벗어나 연수회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인데요. 열변해 주시는 신부님, 맛있는 식사,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수녀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연수 기다리며 열심히 살 겁니다.

♥ 항상 기대하고 기다리던 연수예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쁘고 행복하게, 좀 더 성경말씀에 맛들이도록 노력한 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네 번째 연수에서 만나요.

♥ 1박 2일을 피정으로 여깁니다. 한 학기 공부를 정리하는 것도 좋고, 틈을 내어 소성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음식, 숙소도 대만족입니다. 수녀님들의 섬세한 손길과 프로그램이 참 좋습니다.

♥ 정신없이 과제를 끝내느라 정리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신부님께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시니 이해가 잘 되고, 그룹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와 격려가 되어 힘이 납니다.

♥ 연수회는 내 생애 최고로 화려한 외출입니다. 신부님의 멋진 강의, 잘 짜여진 시간표, 솜씨 좋은 주방장님 맛있는 식사, 영화도 잘 봤어요. 내년에 또 참석하고 싶어요.

♥ 연수회에 참석할까 말까 며칠을 고민한 나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행복한 연수회였어요. 연수회는 제 삶의 비타민이에요.

♥ 18년 만에 재입학했습니다. 그때도 감동이 있었고 다시 오니 행복합니다. 신부님 말씀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 향하고자 합니다.

♥ 영혼의 동맥경화가 치유된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지금 이 자리를 마련하고 이끌어 주신 하느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삶이 너무 힘듭니다. 투정하고 싶은 마음에,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울고 싶은 마음에 오기 힘든 연수회를 오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기에 신앙 안에서 곳곳이 가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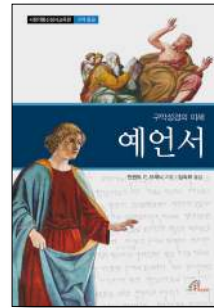
예수 - 탄생과 어린 시절 송봉모 | 바오로딸



성경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성화와 사진 자료들, 문학작품과 예화를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쉽고 깊이 있게 다루었다. 루카복음서와 마태오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왜 차이가 나는지, 복음서는 예수님 공생활 이전의 삶에 대해 왜 침묵하고 있는지, 예수님 형제와 누이들은 누구인지 등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 법한 내용들과 요셉·마리아 등 예수님 주변 인물과 당시 풍습, 사회상, 자연환경에 대한 상세한 해설도 실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생애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묵상하도록 이끈다.

예언서(구약성경의 이해) 빈센트 P. 브래닉 | 임숙희 | 바오로딸

16권의 예언서를 연대에 따라 소개하면서 각 예언서의 내용과 구성 요약, 중요 본문 해설, 신학적 메시지를 정리한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기 위해 신약성경 저자들이 예언서의 본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또한 세부적인 지도와 도표가 본문에 나오는 지리와 역사적인 내용 이해를 돕는다. 각 예언서가 묘사하는 하느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독자들과 본문을 연결시켜 주며, 각자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예언적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지 성찰하게 해준다. 통신성서교육원 4학년 1학기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시서와 지혜서(구약성경의 이해) 박병규 | 바오로딸



이스라엘의 지혜문학에서 지혜의 근본은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이고 지혜의 결론은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함이다. 구약성경의 시서와 지혜서(시편·욥기·잠언·코헬렛·아가·지혜서·집회서) 각 권의 전체적 맥을 짚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이 책은 텍스트의 형성과 관련된 주변 지식을 바탕으로 각 권의 주요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텍스트의 흐름에 대한 전반적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인간의 희로애락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끌어 준다. 통신성서교육원 4학년 2학기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마태오복음(거룩한 독서를 위한 신약성경 주해1) | 이우식 | 바오로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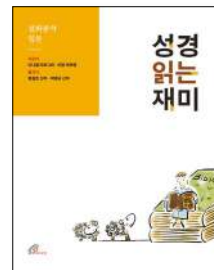


신자들이 성경과 친숙해지고 그 말씀을 생활 안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올바른 성경 번역과 필요한 해석 등을 갖춘 해설이 필요하다. 이에 바오로딸과 한님성서연구소는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경주해' 총서 시리즈를 기획하여 이미 「요한복음」과 「마르코 복음」을 출간했다. 각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과 배경 설명에 이어 성경 본문과 상세한 주해, 특징적인 내용을 주제별로 설명하여 성서적·신학적·영성적 가치를 두루 담아냈다.

성경 읽는 재미 – 설화분석 입문

다니엘 마르그라·이방 부르캥 | 염철호 신부·박병규 신부 | 바오로딸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성경 분석 방법론은 텍스트 자체의 구성과 의미보다는 텍스트 너머에 있는 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두는 역사 비평적 방법에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 이 책은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고 독자 스스로 성경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도록 이끄는 설화분석 입문서이다. 설화분석의 새로운 개념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곁들였으며 연습 문제를 통해 개념 이해의 정도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신약성경신학 | 요아힘 그닐카 | 이종한 | 분도



20세기 가톨릭 신약성경학계의 태두인 저자가 신약성경신학에 대한 필생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책이다. 바오로 사도를 신약 성경 최초의 신학자로 보고 바오로 신학에서 출발해 공관복음서, 요한계 문헌, 바오로 차명 서간, 요한묵시록, 교회 서간의 신학을 다룬다. 이를 통해 신약성경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구원사에 대한 서술이자 이에 대한 믿음과 체험의 문헌적 증언이며, 모든 신학의 결정체임을 강조한다.

거룩한 독서 노트 정태현 | 한남성서연구소



가톨릭교회의 전통적인 성경 독서 방법인 ‘거룩한 독서’를 개인 또는 그룹이 하면서 말씀과 묵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독서 노트. 거룩한 독서에 대한 설명과 성경 전체를 137주간으로 나눈 진도표, 핵심 부분이 정리되어 있어 매일 거룩한 독서를 통해 말씀을 일상의 삶과 연결시키도록 해준다.

시편을 묵상하며 바치는 오늘의 기도 정호경 | 성서와 함께

구약 시대 하느님 백성이 개인이나 공동체로 하느님께 바친 감사와 찬양·탄원의 기도집인 시편을 묵상하며 바친 한 사제의 기도 모음집. 1권(1-50편), 2권(51-100편), 3권(101-150편)으로 되어있는 이 책을 통해 오늘 나의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바친다면 내 삶의 자리와 맞닿은 말씀의 신비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성경의 정의, 평화와 생태학 송창현 | 대구가톨릭대학교출판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의한 양극화 현상, 가난의 구조화, 지구 온난화, 생물 다양성의 상실 등 매우 시급한 문제의 배후에는 정의·평화·생태학의 위기가 있다. 이러한 현상들의 근본 이유와 해결 방안을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학의 원천인 성경에서 모색하는 이 책을 통해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도모하게 된다.

꿈꾸는 노년, 아름다운 인생, 신명나는 성경공부

어르신들이 복음 말씀을 삶과 연결시켜 공부하면서 독서와 필사, 색칠하기와 만들기, 기도하기 등을 통해 네 복음서를 즐겁게 공부하고 말씀에 맛들이도록 돕는다.
교사용에는 수업과 작업에 필요한 자세한 안내가 들어있다.



마르코와 함께 쓰는 나의 복음서 : 김정훈 신부·윤영란 수녀
마태오와 함께 쓰는 나의 복음서 : 김정훈 신부·윤영란 수녀
요한과 함께 쓰는 나의 복음서 : 민남현 수녀·윤영란 수녀
루카와 함께 쓰는 나의 복음서 : 한재호 신부·윤영란 수녀

사도 바오로가 마르코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며 사도인 나 바오로가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신약입문 연수회를 통해 말씀을 배워가는 마르코 공동체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나눔 속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감사하며 나도 그대들에게 격려와 사랑을 보냅니다. 힘든 생활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의 노고와 인내를 기억합니다. 그 모든 일이 가능했던 까닭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화와 희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누구는 일터에서, 누구는 본당 공동체에서, 누구는 가정에서, 누구는 수도회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켜 주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도와주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 바오로가 특별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고합니다.

내 딸 크리스티나, 모든 사람들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대를 보며 나 역시 기뻐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들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내 딸 안나, 풍부한 감성을 가진 그대!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감수하는 그대가 든든합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내 딸 루치아, 그대는 주님의 사랑을 조금 늦게 알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어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니 참으로 기쁩니다. 나는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내 딸 비아, 성당을 다니면서 혼자인 것만 같다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듣

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딸 안젤라, 늘 많은 이들과 함께 주님에 대해서 나누고 이야기하는 그대! 그대의 그 열심한 나눔이 주님 안에서 열 배, 삼십 배, 백 배의 열매를 맺기를 나도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아들 타대오, 그대는 자신이 너무 사무적이라고 생각하나 그대 안에는 주님께서 심으신 보물과 같은 온유함이 있습니다. 이를 깨닫고 발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나도 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내 딸 헬레나, 봉헌된 자로서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어려움까지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대의 그 노고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내 딸 다리아에게도 내 말을 전해 주십시오. 내 딸 다리아, 하느님께서 주신 이성적 판단의 талан트를 가진 그대!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느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더욱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여러분, 나의 형제이며 협력자인 이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온갖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언제나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더욱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십시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굽어보시고 몸소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오로가 요한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느님과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오로가 요한 공동체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통신성서교육원이 주관하는 신약입문 여름연수회 그룹 나눔에서 여러분 요한 공동체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편으로 전해 듣고 예수님의 신비체험으로 회심 후 새 사람이 된 나 바오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고합니다.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 사제나 수도자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부활을 맛볼 수 없고,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알이 깨지고 부서져야 새 생명을 얻고 새 세상을 만나듯 죽음의 관문을 거쳐야 하느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남보다 조금 일찍 내 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만 가신 분들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기억을 간직하시고 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곁을 떠나신 그분들도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시며 또한 여러분 자신의 건강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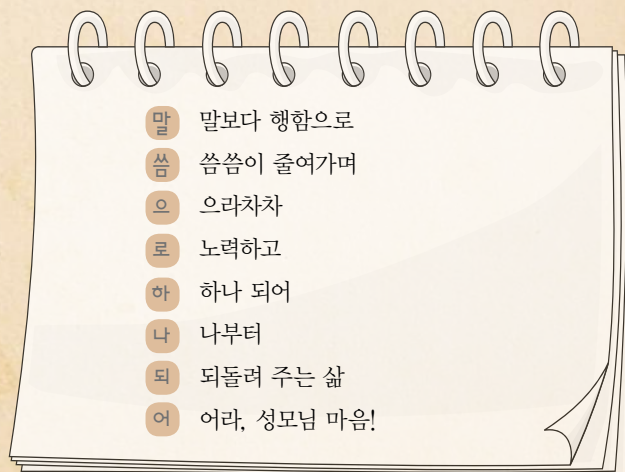
여러분은 교회의 세속화와 개인주의도 걱정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한 여러분의 걱정은 온당합니다. 민주주의가 극단으로 치닫고 경제제일주의가 최고의 가치로 사회에 만연되니 능력이 좀 부족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세상을 살아내야 할지 나 바오로 역시 걱정입니다. 듣자하니 가난한 사람들은 성당 문턱이 너무 높아 아예 성당 안을 들여다볼 엄두도 못 낸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였습니까? 가난한 자, 지체 부자유자, 죄인들의 친구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기왕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나선 기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각자의 능력에 맞게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들을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성령께 의탁하십시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성령께서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중에는 가진 것을 나누며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기꺼이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교회의 희망이고 등불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개인주의화되는 것을 막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동료 교황 프란치스코를 여러분 곁으로 보냅니다. 그는 지극히 겸손하나 할 말을 할 줄 아는 용기 있는 분이니 그와 잘 상의하여 한국교회가 더욱 더 발전하고 온 세상에 복음의 기쁨을 두루 전파하여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2014년 신약입문 1학기 연수회 그룹발표 중에서 -



사도 바오로가 마태오 공동체에 보내는 서간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오로가 주님의 자녀들인 마태오 공동체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안에 통신성서를 시작할 마음을 일으켜 주신 우리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마태오 공동체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신성서에 관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통신성서를 8년간 지속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러나 통신성서를 8년간 지속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20일 마감일까지 통신성서 문제집을 푸는 데만 열중하는 이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이들은 마음을 돌이켜 각자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그리하여 다른 이들이 여러분을 보고 통신성서를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공부는 헛된 공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심장과 같은 김효준 레오 신부님을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에게 여러분이 알아야 할 지혜를 일러주었으니 온 마음과 온 열정으로 듣고 각자의 구원에 힘쓰십시오.

경기장에서 달리기하는 이들은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달리십시오.

그렇습니다, 마태오 공동체 여러분.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들의 덕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생기를 얻게 해주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대들이 해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두 졸업을 위해 힘쓰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십시오.

나 바오로는 여러분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마태오 공동체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아멘.



생명의 찬가-여정
53×45cm Mixedmedia on canvas 2012

최찬희(데레사)

2013년 통신성서교육원 구약중급 4학년 과정 이수

2007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비구상 부문 입선

2012년 제5회 춘천미술상 창작상 수상

강원도 교원미전 은상 2회, 동상 1회 수상

한국교원미술 대상전 입선

개인전 9회, 부스전 4회

현재

춘천미술협회, 한국미술협회 회원

강원미술대전 초대작가

춘천교구 가톨릭 미술인회 회원

춘천 여성 작가회 회원

구암 갤러리 대표 (홈페이지 : www.guamgallery.com)

발행 : 2014년 11월 30일

펴낸데 : 성바오로딸수도회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142-704 서울 강북구 오현로 7길 34

등록 제7-123호 1994. 3. 30

전화 : 02)944-0819~0824 FAX 987-5275

이메일 : uus@pauline.or.kr

홈페이지 : <http://uus.pauline.or.kr>

카페 : <http://cafe.daum.net/junim510>

이 책은 성바오로딸수도회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회지이며 비매품입니다.

통신성서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신학기

학생모집

11.1 다음 해 1.25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요한 17,21)

성경 말씀을...



+



+



매월 교재학습을 통한 **'우편학습'**과

동영상 강의로 이루어진

'이러닝학습'으로

쉽고 편하게...

입학안내

제출서류 : 입학원서

원서접수 : 매년 11월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원서배부 : 전국 바오로딸, 성바오로서원 및
교육원 홈페이지

접수처 : 서울 강북구 오현로 7길 34
성바오로딸수도회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홈페이지 : uus.pauline.or.kr



교육과정

입문과정 _ 신·구약(2년)

신·구약성경의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기초과정

중급과정 _ 신·구약(4년)

입문과정 수료 후속과정으로 한층 더 심화과정

성바오로 신학영성과정 _ (2년)

입문과정 수료자 · 수도자 · 교회기관에서 3년 이상
학습한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영성과정



학습안내

우편학습 _ 우편을 통한 문답식 학습
교재학습 및 문제집 작성 후 우편으로 제출

이러닝학습 _ 온라인을 통한 학습
동영상 강의와 강의자료를 통한 온라인 교육

▶ 우편학습, 이러닝학습 중 선택

입학문의

우편학습

tel | 02) 944-0819~0824
mail | uus@pauline.or.kr

이러닝학습

tel | 02) 944-0840~0842
mail | e-learning@pauline.or.kr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